

# 수원시 한옥 변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nok transformation in Suwon

2013

---

## 연구진

연구책임	● 안국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백선경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연구원	● 정은진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최근 수원시는 한옥 진흥을 위한 노력으로 다방면에서 한옥 활성화 정책을 구상 및 실행 중이다. 타 지자체의 한옥보급 정책을 살펴보면 한옥 개체 수를 늘리기에 급급해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한옥 보급이 뒷전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곧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한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수원 한옥의 정체성을 밝히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옥의 공간과 구법이 무분별하게 왜곡되고 그 품격이 저하됨을 막고자, 한옥 활성화 정책 실현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 한옥 현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이의 조사·실측으로 그 원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어 도시 사회 변화에 따라 현대 주거 생활에 맞춰 변용된 사항을 밝힌다. 화성 성역 내 한옥 보급현황과 변용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측했던 총 38채의 한옥을 바탕으로, 공간과 구법으로 나누어 변용을 분석하였다. 공간에서는 배치와 평면에 대한 원형 및 변용 사항을 파악하고, 구법에서는 기단부, 벽체, 지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수원형 한옥(화성 성역 내 범위 기준)은 ㄱ자형인 서울형 민가와 유사한 평면을 가지며, 이에 바깥채 없이 담장을 두르고 대문을 설치해 집 내부에 출입하는 형태가 상당하였다. 한 채당 평균 201㎡의 대지면적과 65㎡의 건축면적을 가진다. 수원 도시형 한옥은 기존 흙벽 구조가 시멘트 벽돌이나 속빈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조적 방식으로 증축되었으며, 이때 배면의 인접대지 경계선인 담장까지 증축해 가면서, 방의 수와 크기 또한 상당수 늘어났다.

궁극적으로는 수원시 한옥 진흥을 위한 기존 한옥의 보존 및 활용 방안과 신축 한옥에 있어 수원형 한옥에 대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화성 성역 내 미실측 가옥(총22채)에 대한 추가 DB구축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한옥의 원형 및 변용의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질 것이다.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축 한옥을 위한 수원형 한옥 모델 개발이 이어 수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한옥 DB에 대한 가옥 선별로서, 활용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옥에 대한 연구는, 단지 물리적인 환경을 조절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한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수원의 정체성을 간직한 장소로서의 자긍심 및 위상 확보가 그 중심에 있다. 한옥의 개체 수를 늘이는 정책 수행에 앞서, 이의 정체성 수립에 대한 연구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

# 목 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수원 도시 사회의 변천 .....	31
제1절 18세기 신도시 건설 .....	31
제2절 20세기 근대 수원의 사회·경제 변화 .....	32
제3절 20세기 초·중반 목재 수급 및 관련 법규의 변화 .....	37
제4절 시기구분 .....	39
제3장 수원 한옥의 공간 변용 .....	43
제1절 배치 변용 .....	43
제2절 평면 변용 .....	53
제3절 소결 .....	73
제4장 수원 한옥의 구법 변용 .....	79
제1절 기단부 변용 .....	79
제2절 벽체부 분석 .....	81
제3절 지붕부 분석 .....	83
제4절 소결 .....	86
제5장 결론 .....	91

참고문헌 ..... 99

영문요약(Abstract) ..... 103

# 표 목 차

<표 1-1> 한옥 판단 기준 사항 .....	7
<표 1-2>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	10
<표 1-3> 조사 한옥 개체 수 .....	14
<표 1-4> 실측 완료 분석 대상 한옥 .....	15
<표 1-5> 조사 대상 일람표 .....	17
<표 1-6> 기초데이터 2차 분석 .....	18
<표 1-7> 한국 민가의 기존 문화 지역 구분 .....	20
<표 2-1> 20C 초·중반 수원의 사회·경제적 변화 내용 .....	38
<표 3-1> 배치유형 분석 .....	43
<표 3-2> 좌향 .....	45
<표 3-3> 진입 위치 .....	46
<표 3-4> 전면도로 폭 .....	50
<표 3-5> 대지 면적 .....	50
<표 3-6> 흙벽구조 건물 .....	51
<표 3-7> 현존하는 건물 .....	51
<표 3-8> 대문 유형 .....	52
<표 3-9> 마당 재료 .....	52
<표 3-10> 건축이력 .....	53
<표 3-11> 한옥의 용도 .....	54
<표 3-12> 안채와 바깥채 평면유형 변화 .....	55
<표 3-13> 실별 크기 분석: 거실 및 방의 원형 및 변형 크기 .....	59
<표 3-14> 부엌·화장실·샤워실·창고의 원형 및 변형 크기 .....	59
<표 3-15> 위치 분석: 거실 및 방의 원형 및 변형 위치 .....	61
<표 3-16> 부엌·화장실·샤워실·창고의 원형 및 변형 위치 .....	62
<표 3-17> 안채의 방 개수 .....	65
<표 3-18> 안채의 방 개수 비교 .....	66

<표 3-19> 부엌의 변용 .....	70
<표 3-20> 안채에 화장실 설치 .....	70
<표 3-21> 쪽마루 설치 위치 .....	72
<표 3-22> 현재 난방 재료 .....	73
<표 4-1> 초석 유형 .....	79
<표 4-2> 지붕 가구 구조 .....	83
<표 4-3> 서까래 형태 .....	84
<표 4-4> 지붕 형태 .....	85
<표 4-5> 지붕 재료 .....	85

# 그림 목 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수원시 성역과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	6
<그림 1-2>. 수원시 한옥 현황 사전조사 .....	11
<그림 1-3> 연구 대상지 구역 표기 .....	12
<그림 1-4> 조사 매뉴얼 시트 .....	13
<그림 1-5> 실측 완료 현황 분포 .....	16
<그림 1-6> 기후와 주택 평면 .....	22
<그림 1-7> 오막살이집 계열 민가(기본형) .....	23
<그림 1-8> 오막살이집 계열 민가(호서지방) .....	23
<그림 1-9> 서울·중부 지역 민가 .....	24
<그림 1-10> 호남 지방 민가 .....	24
<그림 1-11> 영남지방 민가 .....	24
<그림 1-12> 남동해안지방 민가 .....	24
<그림 1-13> 안동 지방 민가 .....	25
<그림 1-14> 제주도 민가 .....	25
<그림 2-1>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 1796 .....	32
<그림 2-2> 읍지이전 .....	32
<그림 2-3> 구한말의 화성행궁 .....	32
<그림 2-4> 1910년경 팔달문 풍경 .....	32
<그림 2-5> 1920년대 수원읍 .....	33
<그림 2-6> 팔달문에서 본 1930년대 민가들 .....	33
<그림 2-7> 화성내부일대(1930) .....	33
<그림 2-8> 수원시내 성안 중심가(일제시대) .....	33
<그림 2-9> 수원천변 성안마을 .....	34
<그림 2-10> 팔달문 일대(일제시대) (수원시, 근대수원 100년, pp.50) ..	34
<그림 2-11> 日人이 경영하던 정미소 .....	34
<그림 2-12> 읍내의 일본인·중국인음식점 .....	34

<그림 2-13> 1950년대 초 팔달문을 지나는 경찰과 시민 .....	35
<그림 2-14> 1950년대 매산시장 .....	35
<그림 2-15> 팔달문 정상에서 바라본 민가 .....	35
<그림 2-16> 1950년대 수원시내 .....	35
<그림 2-17> 1970년대 수원시가지 .....	36
<그림 2-18> 팔달문 밖 시가지 .....	36
<그림 2-19> 1960년대 신평동 일대 .....	36
<그림 2-20> 1970년대 화서동 일대 .....	36
<그림 3-1> 배치 유형별 분포 .....	44
<그림 3-2> 진입 위치 .....	46
<그림 3-3> 정면 진입 .....	47
<그림 3-4> 좌측 진입 .....	48
<그림 3-5> 우측 진입 .....	48
<그림 3-6> 북측 진입 .....	49
<그림 3-7> 도리 방향(측면) 증축 .....	56
<그림 3-8> 배면 증축 .....	57
<그림 3-9> 마당으로 증축 .....	58
<그림 3-10> 단위공간별 위치와 연계 분석 .....	63
<그림 3-11>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 및 변용 .....	63
<그림 3-12>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 기본형과 확장형 .....	64
<그림 3-13> 안채의 실내화 .....	67
<그림 3-14> 부엌 바닥의 변화 .....	68
<그림 3-15> 부엌의 실내화: 안방과 동일 레벨의 부엌 .....	68
<그림 3-16> 부엌의 분할 .....	69
<그림 3-17> 마루의 종류 .....	71
<그림 3-18> 재래부엌과 입식부엌 .....	72
<그림 4-1> 기단 구조 .....	80
<그림 4-2> 조적벽체 증축 .....	81
<그림 5-1> 수원 한옥의 원형 .....	94

---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기존 연구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수원시는 한옥 진흥을 위한 노력으로 한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한옥 지원 조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살펴볼 수 있다.

수원시는 화성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중이다. 시는 2009년 한옥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원금이 최대 8000만원에 불과하고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단 한건도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고, 한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주와 비슷한 한옥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한옥촉진지역은 공사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신문 12면, 2013.07.25.]

수원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2009년 한옥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원 금액을 올려 한옥의 신축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의 한옥 보급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의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 마을 조성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이 일정 수 이상으로 보급된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기사가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 정체성 유지」 안간힘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2013년9월5일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보호하여 한옥마을과 조화된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마을 내 상업적 기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옥마을은 한옥관광 8대 으뜸명소 선정, 슬로시티 지정,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한옥마을 상업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옥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한옥 마을의 상업시설 확산을 방지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옥마을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보존을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 2층을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2층을 전면 금지하고 높이도 8m이하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지하층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지하층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담장 및 대문설치를 의무화 했다. [전주일보, 2013.09.06.]

위의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옥 보급에 있어 초기에는 한옥 보급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을 가진 한옥을 공급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에 수원에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원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원 행궁 내 한옥 보급을 위해서 기존 한옥을 조사·실측해 이의 원형을 밝힐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최근 지자체마다 한옥 보급을 위해 법 제도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한옥 마을에서 한옥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한옥 신축을 승인해 주면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나 모습들이 왜곡되어 품격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수원형 한옥, 즉 수원 한옥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히 잡고 현대 주거 생활에

맞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원시 한옥의 원형과 변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

- 1) 수원 한옥의 원형을 규정한다.
- 2) 수원 한옥의 평면과 구법의 변용된 사항을 명확히 밝힌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연구 조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한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에 분포된 한옥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히 실측하도록 하였다. 이에 30년대 이전 지어진 한옥에서부터 해방 이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60년대 이후의 한옥을 바탕으로, 변용의 행태를 추적하고 수원 한옥이 가진 입지와 변용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원형 한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상당수의 한옥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의 역사적 인프라를 가지며 수원형 한옥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일 것이라 검토되는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을 포함한 성역 내를 조사범위로 한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수원시 성역과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 2) 조사 대상 한옥의 범위

조사 대상인 한옥의 판단 근거 및 기준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존 한옥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바, 이에 범위 내 한옥의 현황 파악 조사가 일차적으로 요구되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2000년 수원시에서 일부 조사, 실측한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위한 한옥 현황 조사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한옥의 범위 규정은 본 연구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목구조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지붕 구조, 재료 등을 바탕으로 한옥과 변형상당 한옥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한옥은 사찰 등을 제외한 일반 민가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주거가 현재 변용된 사항까지 포함한다.

〈표 1-1〉 한옥 판단 기준 사항

목구조	지붕구조	재료
기둥·보 등이 목구조 방식으로 구축	서까래·도리·대공·보 등을 이용한 한식지붕구조	초가·기와 지붕 재료, 흙벽, 조적 등의 벽체 재료 등
		

## 2. 연구의 방법

### 1)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수원시 한옥의 특성 도출을 위해,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해 각 단계별로 구체적 수행 사항에 따라 효율적인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첫째는 사전조사 단계로, 연구 대상 지역의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한옥 현황 파악 단계이다. 성역 내외 주변의 인문학적 정보 및 토지이용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목구조 건축을 잠정적으로 한옥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2000년 수원시에서 일부 실측한 수원의 한옥 자료를 받아 현장 조사 이전에 실측 여부를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어 현장 조사를 위한 지도를 구역별로 표기하고, 조사 매뉴얼을 작성해 후에 분석을 위한 기준 틀을 마련하였다.

- 대상지역의 역사·지리적 정보 수집
- 기존 자료 활용을 통해 잠정적으로 한옥 여부 판단
- 대상지의 구역별 표기와 분석 기준 틀(조사 매뉴얼) 마련

두 번째는, 연구 범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측 단계로서 한옥으로 잠정 분류했던 대상에 있어, 위에 제시한 구조, 재료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판정한다. 이에 한옥 및 변형 상당 한옥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옥 대상에 한해서는 실제 거주자 협조로 외관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기록하고, 한옥의 실내·외 공간을 실측한다.

-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옥 여부 최종 판단 (한옥 및 변형 상당 한옥으로 분류)
- 한옥 관찰과 거주자 인터뷰를 통한 매뉴얼 작성
- 한옥의 실내·외 및 인접 공간 실측

세 번째는, 기초 데이터 테이블 작업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수원의 한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다.

- 조사 대상 목록 작업
- 구체 정보 데이터화

이에 따라 네 번째는, 분석 단계로서 데이터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한옥의 원형 및 변형을 나누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건축년도 등의 배경 사항부터, 배치 및 진입, 평면, 구조 및 입면으로 나누어 보고, 이들을 대등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한옥 원형과, 근대 이후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변용된 모습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변용의 특성은, 결론적으로 수원시 한옥의 특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

- 각 한옥의 배경사항, 배치 및 진입, 평면, 구조 및 입면 사항을 원형과 변형 모습으로 나누어 분석
- 시대 흐름에 따라 변용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수원시 한옥의 입지와 방향을 제시

〈표 1-2〉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연구단계	연구항목	내용
사전조사	지역정보	역사정보, 토지이용정보 파악
	건축정보	건축물대장, 수원시 실측자료 파악으로 한옥현황 1차 파악
	한옥판단기준	한옥 범위 규정 및 분석 기준 틀 마련
현장조사 및 실측	한옥분류	현장조사를 통해, 한옥 및 변형 상당 한옥으로 최종 판정, 분류 및 기록
	매뉴얼 작성	외관정보, 거주자인터뷰를 통한 조사 매뉴얼 작성
	한옥실측정보	실내·외 및 주변 인접 대지 등 실측
기초데이터 일람화	조사대상 일람화	현장조사대상 일람화
	데이터화	구체적 기초데이터 테이블작업
분석	데이터 분석	배경사항, 배치 및 진입, 평면, 구조로 나누어 한옥별 원형 및 변형 사항으로 2차 자료 분석
	수원한옥특성	분석 바탕 수원시 한옥 변용 특성 도출

## 2) 연구 수행 세부 사항

### (1) 사전조사

건축물대장의 목구조 현황과 2000년 수행된 수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한옥을 파악하고 이에 목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역 내로 범위를 설정한 바, 목록 중 범위에 해당되는 일부만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한옥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 폐가인 경우, 이전 자료에서는 양호 한옥으로 판별되었으나 현재 변형 상당 한옥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한옥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추가되는 한옥 또한 상당하여 현장조사하며 추가 목록화 하였다.

순번	역명번호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특성						도면번호
					안재			사당재			
형태	가구	지붕	형태	가구	지붕						
1	관-교01	연흥요가옥	관선구 고동동 156-36번지 (연우물길 120번지)	형태 갈합기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층처마 우진각지붕	가로 dim 없음
2	관-교02	신안화가옥	관선구 고동동 172-13번지 (고동4길 15번지)	1969년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	-	-	가로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	관-교03	박지환가옥	관선구 고대동 32번지 (고대로 268)	1945년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4	관-교04	김전순가옥	관선구 구운동 139-47번지 (학구로 3길 19번지)	안재 1933년 창설 1967년	~"지형	1.2주 4량	층처마 팔작지붕			상설 ~"지형	dim 있음
5	관-교05	유영달가옥	관선구 구운동 222번지	시형제 1906년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통4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세로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6	관-교03	윤재익가옥	관선구 구운동 234번지	안재 1950년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7	관-교04	고준상가옥	관선구 구운동 123-3번지	시형제 1962년	~"지형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층처마 팔작+우진각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8	관-교05	이무선가옥	관선구 구운동 236번지 (수안로 379번지)	안재 1943년	~"지형	통4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지형	3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dim 있음
9	관-교06	박영식가옥	관선구 구운동 239번지 (수안로 387번지)	안재 1946년	~"지형	5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	-	-	dim 있음
10	관-교07	김장환가옥	관선구 구운동 285-8번지 (황구물길 2번지)	시형제 1946년	~"지형	통4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지형	3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세로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11	관-교08	손홍중가옥	관선구 구운동 300번지 (황구물길 240번지)	1940년대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안재 ~"경)	5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12	관-교09	손경중가옥	관선구 구운동 305번지 (황구물길 22번지)	안재 1941년	~"지형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통4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dim 있음
13	관-교01	배달가옥	관선구 골목동 1007번지	1930년대	~"지형	1.2주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3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dim 있음
14	관-교01	한철수가옥	관선구 당수동 278번지 (당수길 4번지)	안재 1945년	~"지형	1.2주 5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15	관-서01	유시균가옥	관선구 서운동 307-10번지 (서운동4길)	안재 1933년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16	관-서02	유시환가옥	관선구 서운동 321-2번지 (서운동2길)	시형제 1936년	~"지형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통4량	층처마 팔작+우진각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17	관-서03	한상복가옥	관선구 서운동 355-11번지 (백리길 7길 32호)	안재 1902년	~"지형	1.2주 5량	팔각+우진각지붕	~"지형			dim 있음
18	관-서04	김남익가옥	관선구 서운동 358-21번지	미상	~"지형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	-	-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19	관-오목천01	최재화가옥	관선구 오목천동 502호	안재 1946년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1.2주 통4량	층처마 맞배지붕	dim 있음
20	관-오목천02	최수영가옥	관선구 오목천동 813번지 (오목천2길)	안재 1946년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21	관-오목천03	박건안가옥	관선구 오목천동 골짜기동 816번지	안재 1947년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22	관-평01	최재화가옥	관선구 평동 7번지	1950년대	~"지형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23	관-평02	김진준가옥	관선구 평동 9-11번지	1931년	~"지형	1.2주 통4량	겹처마 팔각+우진각지붕	~"지형			dim 있음
24	관-평03	김정선가옥	관선구 평동 15-212번지	1943년	~"지형	1.2주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	-	-	dim 있음
25	관-호매동01	한상재가옥	관선구 호매실동 403-2번지	1915년	~"지형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1.2주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26	관-호매동02	박영목가옥	관선구 호매실동 640번지 (지목)	1962년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5량	층처마 팔각+우진각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27	관-호매동03	박영선가옥	관선구 호매실동 지목 마을 840-2번지	1946년	~"지형	1.2주 5량	층처마 우진각+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28	관-호매동04	박영목가옥	관선구 호매실동 903번지	1937년	~"지형	1.2주 통4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지형	1.2주 통4량		dim 있음
29	관-호매동05	최재화가옥	관선구 호매실동 가리마 마을 1253번지	1945년	~"지형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통4량		dim 있음
30	장-복수01	윤용복가옥	장안구 복수동 227번지 (물부자리 90번지)	1937년	~"지형	통4량	층처마 팔작지붕	-	-	-	dim 있음
31	장-복수02	김연순가옥	장안구 복수동 236번지 (물부자리 90번지)	미상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3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2	장-복수03	이정수가옥	장안구 복수동 251번지 (보시동2길 8번지)	1943년	~"지형	1.2주 5량	겹처마 우진각+팔작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3	장-신동01	김홍천가옥	장안구 신동동 154-3번지 (신동3길 88번지)	미상	~"지형	5량	겹처마 우진각+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4	장-신동02	이수형가옥	장안구 신동동 235-3번지 (신동3길 4번지)	1940년대	~"지형	5량	층처마 팔작지붕	~"지형	3량	층처마 우진각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5	장-장안01	이재숙가옥	장안구 장안동 11-3번지	광복전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36	장-장안02	박복순가옥	장안구 장안동 78-3번지 (재 장안 2길)	미상	~"지형	5량	겹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7	장-장안03	이옥내가옥	장안구 장안동 78-4번지 (재장안2길 9번지)	미상	~"지형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38	장-장안04	대한방직 사택	장안구 장안동 79번지 (재장안 3길 99번지)	미상	~"지형	1.2주 5량	겹처마 팔작지붕	~"지형	1.2주 5량	층처마 팔작지붕	dim 있음 도면 일부 열락

〈그림 1-2〉. 수원시 한옥 현황 사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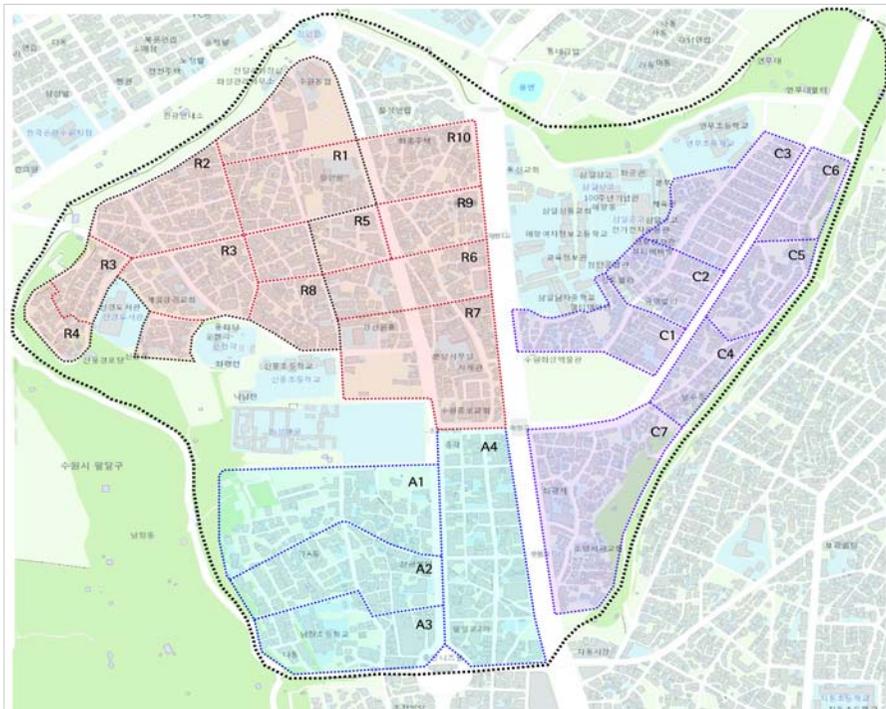
특히 이전에 수원시에서 조사된 한옥은 총 74채로서, 이에 성역 범위 내에서는 14채가 확인된다. 그 중 6채는 소재지가 확인 불가한데, 한옥이 헐려 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새로운 양옥이 들어서 있었다. 장안구 신평동 154-1번지의 김중천 가옥, 장안구 신평동 235-3번지의 이수형 가옥, 장안구 장안동 11-3번지의 이재숙 가옥, 장안구 장안동 78-3번지의 박복순 가옥, 장안구 장안동 79번지의 대한방직 사택, 팔달구 매향동 140-1번지 동청부리길 10번지의 백순초 가옥이 그러하다. 또한 장안구 복수동 236번지의 김연순 가옥과 팔달구 매향동 21번지의 김화림 가옥은 실측 도면까지 잘 남아있었으나, 이중 김화림 가옥은 현재 서까래 등 목구조 판별이 불가하도록 조적식으로 변형해, 변형 상당한 한옥으로 재분류하였다. 나머지 6채는 수원시에서 실측한 자료가 일부만 남아있어, 다시 조사, 실측해 분석 자료를 확보하였다. 장안구 복수동 236번지

김연순 가옥, 장안구 복수동 251번지 이정수 가옥, 장안구 장안동 78-4번지 이옥녀 가옥, 팔달구 남수동 82번지 김순심 가옥, 팔달구 남창동 24번지 장준식 가옥, 팔달구 남창동 74번지 이상은 가옥이 그러하다.

## (2) 현장조사 및 실측

### ① 분석 대상지 지도

연구 분석 대상의 현장 조사 및 실측에 있어 대상지를 구역별로 나누고 이에 조사 현장에서의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성역 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행궁 왼편, 그 외를 각각 R,A,C로 두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각 구역마다 한옥, 변형상당 한옥, 실측불가 한옥(폐가 및 점집)으로 체크하였다.



〈그림 1-3〉 연구 대상지 구역 표기

## ② 조사 매뉴얼 작성

실측에 있어 앞서 규정한 한옥 판별 기준으로부터 조사 매뉴얼 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옥, 변형 상당 한옥으로 분류한다. [그림 1-4]의 매뉴얼 시트는 한옥의 외관, 인접대지 등 가로경관,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된다.

「수원시 한옥 변용에 관한 연구」 건물조사 카드 I

일련번호				
건물명				
소재지				
소유자	거주자	이름		
		연락처		
집의 내역				
가족 구성 ①독거 ②조부모 + 부모 + 자녀 ( ) ③부모 + 자녀 ④부부 ( )				
주업				
종교 ①유교 ②불교 ③개신교 ④기독교 ( )				
목수	이름	나이	거주지	주할약 지역
				비고
외부 공간	담장	①서연석 ②흙 ③벽돌 ④시멘트블럭 ⑤짜리를 ⑥슬레이트 ( )		
	마당	이름	면적당	비탈마당
	용도	대문·주출입	①작은대문 ②큰대문 ( )	①작은대문 ②큰대문 ( )
중개속	시기			
	부분			
등급				
조사자 의견				
조사 년월일시		조사자		

「수원시 한옥 변용에 관한 연구」 건물조사 카드 II

개	건축년대 및 상량문			
	가구	①오양 ②행사양 ③상양 ④침양 (X )	( )	
별	서마·차양	①용서마 ②견서마 (X )	①있다 ②없다 (X )	
	기단·재료	①자연석 ②지석 (X )	①시멘트용달 ②흙 ③강회 (X )	
건	초석	①자연석 ②지석 (X )		
	지붕	①양배 ②우진각 ③양작 ④모임 ⑤모임+양작 ⑥양배+우진각 (X )		
용	지붕재료	①한식기와 ②시멘트기와 ③질 ④임란암 ⑤슬레이트 ⑥양철 (X )		
	난방·취사	연호	특성	현저사용설명
실	①			비고
	②			
별	③			
	④			
특기사항				

〈그림 1-4〉 조사 매뉴얼 시트

## ③ 한옥 실측

한옥으로 판정되면, 한옥의 물리적인 구체 조사 항목 이외에 이에 거주자 협조로 공간 내·외부를 상세히 실측한다. 평면을 중심으로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입면과 단면을 추가 실측한다.

본 연구에서 성역 내 실측한 한옥은 총 38채로, 그 중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 한옥은 18채 실측하였다. 원형은 한옥으로 추정되나, 현재 조적식으로 변형하는 등 목구조, 지붕구조, 한옥 재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변형 상당 한옥은 34로 파악된다.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 변형 상당 한옥은 15채이

다. 실측 불가 한옥(폐가 또는 점집)은 28채로,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8채를 실측 조사하였다. 특히 계속해서 방문했으나 거주자가 해당 낮 시간에 집을 비우거나 하는 등 미실측 한옥을 지도상에서 따로 분류해 체크하였는데, 이는 총 22채로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에는 6채가 있다. 결과적으로 성역 내 한옥 개체 수는 변형 상당한 한옥을 제외하고 총 88채로 파악된다. 그중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 32채이다.

〈표 1-3〉 조사 한옥 개체 수

조사 한옥 분류	총 수량	한옥축진특별건축구역 내
실측완료 한옥	38	18
실측불가 한옥	28	8
미실측 한옥	22	6
변형상당 한옥	34	15
(변형 상당한 한옥 제외) 계	88	32

조사 한옥 중, 수원시 한옥 특성 파악을 위해 분석 가능한 실측 완료 한옥 대상 및 해당 현황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4〉 실측 완료 분석 대상 한옥

순번	가옥명	소재지	조사구역
1	나순임가옥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6번길 4-3	C7-1
2	공전식당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6번길 12	C7-1
3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6번길 14-12	C7-1
4	Café다담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5-1	R8
5	정분철가옥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58번길 9	R1
6	최홍자가옥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58-13	R1
7	김기철가옥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58-14	R1
8	이옥녀가옥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58-18	R1
9	-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63번길 3-12	R1
10	상미여인숙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5번길 16-2	A2
11	장병학가옥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1번길 30	A1
12	J-art문화센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1번길 6-1	A1
13	-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60번길 19-7	R9
14	강희재가옥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03번길 135	C1
15	-	수원시 팔달길 창룡대로 103번길 127-9	C1
16	김수억가옥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6번길 24-9	C7-1
17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30번길 16	C7-1
18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1번길 28	C1
19	서순덕가옥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1번길 36	C1
20	-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1번길 46	C1
21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A1
22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식당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6	A1
23	천지인점집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50-1	A3
24	신현교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22번길 25	R3
25	송경찬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22번길 26	R3
26	엄기홍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22번길 34-7	R4
27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22번길 42	R4
28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22번길 26	R2
29	최옥순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1번길 9-1	R2
30	허안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2번길 7-4	R3
31	김종순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1번길 14	R2
32	한옥임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1번길 15-15	R2
33	허의대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5번길 10	R1
34	김태옥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48번길 24	R8
35	조인권가옥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51번길 4	R1
36	금보여인숙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11	R9
37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14	R9
38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72번길 17-8	R9



(그림 1-5) 실측 완료 현황 분포

### (3) 기초데이터 일람화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된 한옥은, 앞서 제시된 한옥 판별 기준에 따라 크게 한옥과 변형 상당 한옥, 실측 불가 한옥(폐가 및 점집)으로 분류된다. 이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일람화 하고, 엑셀 테이블화 하였다. 총 4시트로, 실측 완료된 한옥과 폐가 또는 점집인 실측불가 한옥, 미실측 한옥, 그리고 변형 상당 한옥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표 1-5〉 조사 대상 일람표

순 번	색인번호	가옥 명	소재지	조사일	조사자	측진 지구	구역	수원 시 실측	비 고
1	수원천 316(4-3)	-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6번길 4-3	2013.11. 15.금 /am10	정은진, 백선경	-	C7 -1	-	-

#### (4) 분석

매뉴얼 시트를 통해 조사, 작성되고 또한 실측된 한옥의 구체적 정보를 크게 배경 사항, 배치 및 진입, 평면, 구조 및 입면 사항으로 나누어 2차 분류해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배경사항은 해당 한옥의 건축년도, 상량문의 유무, 용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어 배치 및 진입에 있어서는, 건물의 향(좌향과 진입향), 접도개수, 전면도로 폭, 그리고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물동의 변화를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평면은 크게 평면 형태, 크기 및 공간 구성, 그리고 구체 실들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안채와 바깥채의 유무 및 형태(ㄱ자, ㄴ자, ㄷ자, -자 등), 용척, 공간구성(방, 거실, 부엌, 화장실, 창고)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분석한다. 특히 평면 분석에 있어서 현관의 유무나 부엌, 화장실의 내·외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더불어 마루(대청), 쪽마루 유무를 살펴보고, 또한 다락의 유무로 난방의 종류(부뚜막, 연탄, LPG, 가스보일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조 및 입면 분석은 크게 기단, 벽체, 지붕으로 나누어 파악해 보도록 한다. 기단에 있어 이의 유무, 종류, 마감상태, 내민길이, 높이를 파악하며, 초석의 유무와 형태 또한 분류한다. 구조 및 입면에 있어 벽체 분석은 첫째로 재료와 구법을 파악하는 데 있다. 기존의 흙벽이 후에 변용될 때에 조적(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등)으로 증축, 신축되며, 이를 실측된 도면을 보고 각 실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 분석하였다. 벽체의 두께(벽, 기둥 두께) 또한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과 변형을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지붕 변용 사항에 있어, 가구 구조, 서까래 종류 및 형태, 두께, 간격, 내민길이를 분석하며, 지붕 내민길이, 연등천장인 지 종이반자인지의 여부, 맞배, 우진각, 팔작, 모임 등의 지붕형태 및 재료 사항을 분류, 비교한다.

특히 이러한 구체 사항은 모두 원형과 현재 변형된 바로 구분해 살펴봄으로써 본래 수원에 지어진 한옥의 모습이 도시화가 진행되며 변형된 특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함이다. 한옥이 가진 목구조적 특징은 특히 칸의 확장이나 축소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에 기존 흙벽이나 기둥에 시멘트벽돌로 조적식 칸이 추가되어 사용되거나, 기존의 흙벽을 허물고 두 칸의 방을 현재는 한 칸으로 넓게 쓰는 등 여러 변용 사항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표 1-6〉 기초데이터 2차 분석

배경사항	건축년도   상량문   용도
배치 및 진입	좌향   진입향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동   담장재료   대문재료   마당재료
평면	안채   바깥채   안채면적   용척   공간구성   현관유무   부엌   화장실   대청유무   쪽마루유무   쪽마루위치   다락유무   난방종류
구조 및 입면	기단 - 기단유무   기단구조   기단마감   기단 내민길이   기단높이 벽체 - 재료   구법   외벽마감   벽두께   기둥두께 지붕 - 가구구조   서까래종류   서까래형태   서까래두께   서까래간격   내민길이 지붕 내민길이   천장   지붕형태   지붕재료

한옥은 그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평면에서부터 배치, 입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뿐 아니라 실제 한옥의 실측을 통한 면밀한 분석으로 수원시 한옥이 가진 특성을 도출하고, 향후 증축 및 신축될 한옥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기존 연구

#### 1) 한옥의 지역성

##### (1) 지역성을 반영한 한옥<sup>1)</sup>

한 나라의 주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의 독특한 자연과 풍토 속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대다수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양식인 한옥 또한 지역별 정주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주거양식을 보여 왔으며, 이를 주거의 지역성이라 일컫는다.<sup>2)</sup>

한국 민가의 지역적 특징과 분포권 조사·연구는 1920년대부터 여러 학자들의 통해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민가의 문화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분류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민가의 안채 평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가의 몸채가 홑집(의통형)으로 이루어졌느냐, 혹은 겹집(양통형)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와키센지·노무라 요시후미·이영택·주남철 등에 의한 것인데, 주로 안채 평면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지역에 따라 표현은 다르지만 북부·서부·서울중부·남부·제주도 등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후자의 경우 북한 학자인 리종목, 황철산을 포함하여 장보웅 등이 가세한 분류법인데, 주로 몸채의 방 배열에 분류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안채 이외에 가옥의 배치 형상도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3)</sup>

---

1) 한옥이라는 용어는 융희2년(1907년 4월 23일)에 작성된 「가사에 關한 照覆文書」에서 처음 그 용례가 확인된다. 이 때, ‘한옥’은 양옥(洋屋, 양식(洋式)가옥, 연와즙(煉瓦葺) 등 새로 도입된 구조와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형식의 주택에 상응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옥의 정의와 개념정립』, 2006, pp.15]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옥이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에 민가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옥과 민가의 용어를 혼용하도록 한다.

2)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솔아카데미, 2006, pp.98

3) ibid. pp.102

〈표 1-7〉 한국 민가의 기존 문화 지역 구분

번호	제안년도	제안자	지역 구분
1	1924	이와키 센지	北鮮형, 京城형, 中鮮형, 西鮮형, 南鮮형
2	1938	노무라 요시후미	제주도형, 북선형, 일반형(서선형, 남선형), 도시형(경선형, 중선형)
3	1960	리종목	외통형(외채형, 쌍채형, 꺾음집, 뛰리집) 양통형(정주간 있는 집, 정주간 없는 집, 세겹집)
4	1965	황철산	외통형(一자집, 二자집, ㄱ자집, ㄷ자집, ㅁ자집) 양통형(북부형, 중부형, 남부형)
5	1965	이영택	중부형, 남부형, 관서형, 관북형
6	1970	김정기	서울형, 북부형, 서부형, 중부형, 남부형, 제주도형
7	1980	주남철	함경도 지방형, 평안도 지방형, 중부 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 지방형, 제주도 지방형
8	1980	장보웅	單列(홀집) 민가형, (直家형, 曲家형) 複列(겹집) 민가형, (3~5실형 민가, 특수형 민가)
9	2006	조성기	오막살이집 계열, 서울·중부지역, 호남지역, 영남지방 및 남동해안지방, 북부지방, 제주도지방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pp.101)

## (2) 주문화권별 지역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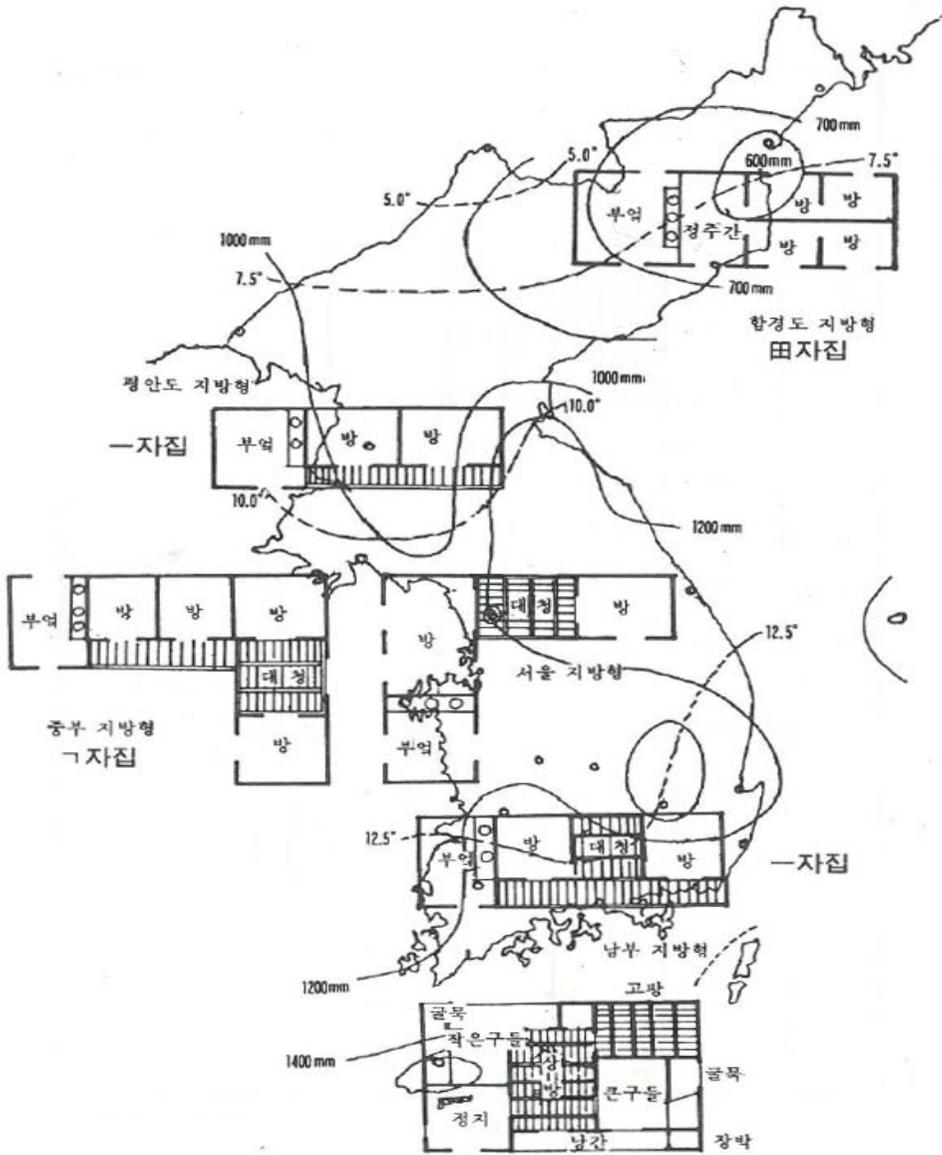
한반도 민가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남철은 지역을 함경도 지방형, 평안도 지방형, 중부 지방형, 서울 지방형, 남부 지방형, 제주도 지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sup>4)</sup>

- 함경도 지방형의 평면은 함경도지방과 강원도지방에 분포된 것으로 전자형을 기본으로 여기에 부엌간안방과 기타 부속간이 붙은 것으로 특히 방들이 전후로 붙은 것과 부엌과 안방(정주간)이 벽이 없이 서로 붙은 것이

4)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 서울대학교 박논, 1976, pp.19~26

특징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지방으로 네 개의 방들을 전자형으로 배치하여 열손실을 적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평안도 지방형은 평안남북도, 황해도북부의 일부지방에 분포된 것으로 부엌, 방, 방의 순으로 일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부지방형과 동일한 일자형이나 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중부 지방형은 특히 개성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일부를 중부지방에 분포된 형으로 평안도지방형에 대청과 방이 ㄱ자형으로 붙은 것이다. 이는 서울형으로 불리는 ㄱ자형과 흡사한 것으로 대청과 부엌의 위치가 다른 것이 차이점이다. 고로 안방이 남향이 됨으로서 자연, 일사에 유리하다.
- 남부지방형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도지방에 분포된 바, 평안도지방형에 대청이 첨가된 것으로 기후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도지방형은 제주도에만 나타나는 특색 있는 형으로 전자와 비슷하나 마루가 있고 부엌의 부뚜막이 방 쪽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서울지방형은 중부지방형과 같이 ㄱ자형으로 생겼으나 부엌이 꺾인 부분에 위치하고, 마루가 전면에 나오게 된다. 방위상 대부분 부엌이 동서로 면하게 되어 중부지방에서 남향에 면하던 바와 차이가 있다. 또 안방과 마루 역시 서울지방형에서는 남향에 면하여 중부지방형이 동서에 면하던 것과는 반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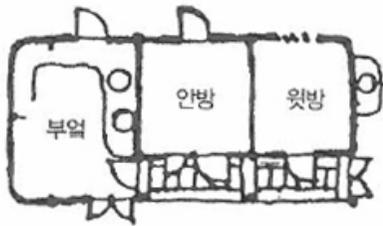


〈그림 1-6〉 기후와 주택 평면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p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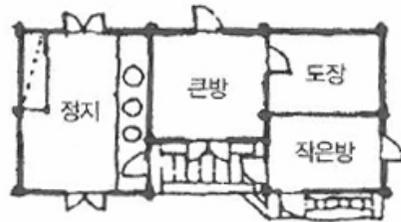
여러 조사·연구를 통해 가장 최근에 민가의 문화지역을 구분한 사람은 2006년 조성기이다. 이는 민가를 오막살이집 계열, 서울·중부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및 남동해안지방, 북부지방, 제주도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sup>5)</sup>

- 오막살이집 계열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평면 유형으로서 부엌 한 칸과 방 한 칸으로 구성된다. 이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민가형과 공존하고 있다.



〈그림 1-7〉 오막살이집 계열  
민가(기본형)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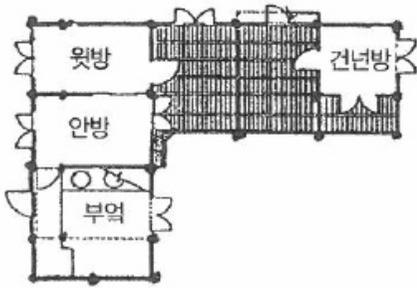
〈그림 1-8〉 오막살이집 계열  
민가(호서지방)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6)

- 서울·중부지방 민가의 기본적인 특징은 안채 모양이 ‘곱패집’ 혹은 ‘곱은자 집’이라 불리는 ㄱ자형 가옥 형태를 보여주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민가의 구체적인 요소는 부엌·안방·대청·건넌방 등이며, 이것을 부엌·안방의 배열 축과 대청·건넌방의 배열축이 직교되게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대청이 남향으로 자리한다.<sup>6)</sup>
- 호남지방형은 정지를 중심으로 한쪽에 큰방과 마루, 그리고 반대쪽에 모방(작은방)이 배열되는 유형이다. 특히 마루는 두 짝 널문의 출입문이 시설되어 폐쇄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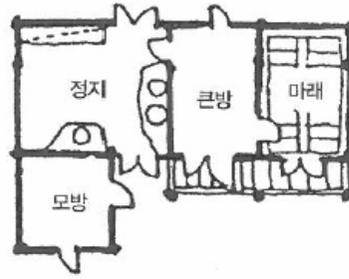
5)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pp.100~113

6) ibid. pp.192



〈그림 1-9〉 서울·중부 지역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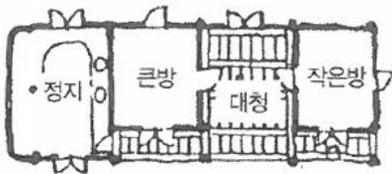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7)



〈그림 1-10〉 호남 지방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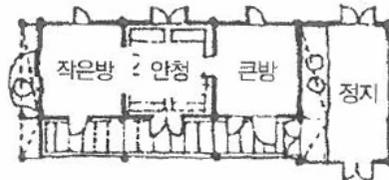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7)

- 영남지방 및 남동해안지방 민가는 정지·큰방·대청·작은방이 一자형으로 배열된다. 큰방과 작은방은 원칙적으로 대청을 통해 출입된다. 대청은 안마당과 함께 잔치를 열거나 제사 따위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마당 안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림 1-11〉 영남지방 민가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8)



〈그림 1-12〉 남동해안지방 민가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08)

- 북부지방 민가는 함경도, 영동·안동, 황해도 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지 안에 온돌구조의 '정주간'을 둔 점과 田자형 평면의 온돌방이 겹집으로 배열된 점이다. 이 지방의 민가는 고상식 마루가 등장하지 못하고 주거 공간이 몸체에 집중화되는 외정형의 모습을 보여준다.
- 제주도 민가는 온돌 구조가 뒤늦게 전해진 탓으로 한반도와는 다른 남방계(南方系) 주거 양식을 보인다. 정지에 인접해 고상식 '상방'이 있고 안

방 격인 구들은 ‘고팍’과 한 묶음이 되어 정지의 반대쪽 단부에 있다. 정지에 상방이 인접하는 것은 제주도 민가의 평면이 온돌 난방과는 무관하며, 중심이 되는 주거 공간이 온돌밭이 아니라 ‘상방(마루방)’이라는 증거이다.



〈그림 1-13〉 안동 지방 민가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10)



〈그림 1-14〉 제주도 민가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11)

### (3) 수원한옥의 지역적 분류

수원형 한옥은 지리적으로 서울지방형 및 중부지방형에 속하는 ㄱ자형 가옥 형태를 가진다. 즉, 민가의 구성요소인 부엌·안방·대청·건넌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엌·안방의 배열 축과 대청·건넌방의 배열축이 직교되게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주남철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과 중부지역은 동일한 ㄱ자형 가옥을 보일지라도 구성요소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부지방형은 대청과 방이 ㄱ자형으로 붙은 것으로, 서울형과 대청과 부엌의 위치가 다르다. 즉, 부엌은 남향에 위치하며, 안방과 마루는 동서에 면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서울 지방형은 부엌이 꺾인 부분에 위치하며, 마루가 전면에 나오게 되어 방위상 부엌이 동서로 면하게 되어 안방과 마루는 남향에 면하게 된다. 따라서 중부지방형과 반대가 되는 형상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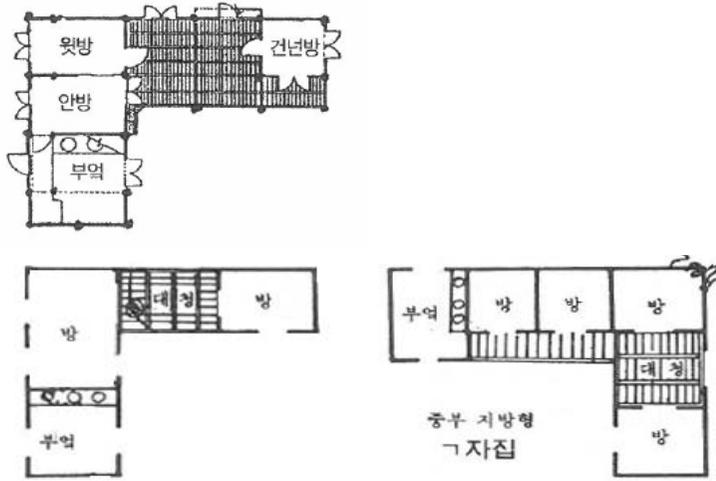


그림 1-15. ㄱ자형 가옥 비교

(위) 조성기, 서울·중부지역 ㄱ자형

(아래) 주남철, 서울지역 ㄱ자형과 중부지역 ㄱ자형

따라서 수원 지역의 한옥은 ㄱ자형 평면의 서울·중부형 한옥에서 평면 구성요소 및 위치에 따라 서울지방형 한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시간의 변화 속에 일부 방의 위치가 변화하거나 변형, 확장되어 도시한옥의 특징인 ㄷ자형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2) 기존 한옥 실측 및 조사 연구

지금까지 수원한옥에 대한 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지만, 한옥 전수조사를 행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실측조사 자료를 보면,

- ① 첫 번째 조사는 1999~2003년에 걸쳐, 서울·경기 일원 대학(필자도 참가했음)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약 4천여 곳 마을을 대상으로 1,700여동 민가를 조사하였다. 그 중 전통민가의 특성이 잘 남아 있는 1,270여동을 실측하여 평면도를 작성 기록하였다. 결과물로 경기도문화재

단에서 발행한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2003 이 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수원의 한옥은 11채로, 수원행궁 내의 가옥은 2채에 불과하다.

- ② 이후, 두 번째 실측조사는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발주한 용역으로(수원 전통가옥 조사 및 연구, 2002) 수원 전역의 한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되었던 가옥은 총 74채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에 평면도가 제대로 실린 가옥은 42채에 불과하다. 그중 화성 성역 내 실측되어 있는 가옥은 14채이며, 그중 8채는 현존하고 있으며(완성된 도면 2채, 미완성 도면 6채), 6채는 멸실된 상태이다.
- ③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년, 수원박물관에서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화성 성역 내에 7채가 실측·조사되어 있으나, 모두 기존 수원전통가옥 조사 및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로 새롭게 실측한 가옥은 없다. 현존한 가옥은 4채이며, 멸실된 가옥은 3채이다.

기존 화성 성역 내 완벽하게 실측되어 자료로 활용 가능한 가옥은 4채뿐이다. 이에 화성 성역내의 한옥실측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점점 멸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실측조사는 시급한 상황이다.



---

## 제2장

# 수원 도시 사회의 변천

제1절 18세기 신도시 건설

제2절 20세기 근대 수원의 사회·경제 변화

제3절 목재 수급 및 관련 법규의 변화

제4절 시기구분



## 제2장 수원 도시 사회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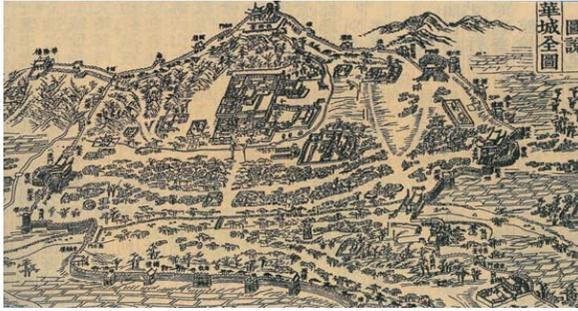
### 제1절 18세기 신도시 건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의하면 팔달산 아래 신읍치(現 수원)는 구읍치에 비해 지형상 규모가 크고 넓어서 이곳에 축성하여 읍치로 삼는다면 실로 크게 번영하고 읍내 외 가호 1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하였다.<sup>7)</sup> 이후 정조는 수원 화성의 축성과 함께 수원의 읍치를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원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정조 13년(1789) 읍치를 옮겨 대대적인 신도시가 건설되고 화성 성곽이 축조될 당시 읍치 소재지에 거주한 주민은 200여 호였으며 「호구총수」에서 정조 13년 구 수원읍치 소재지인 용복면은 호수 221, 인구 676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자는 348명, 여자는 32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sup>8)</sup> 이 후, 관의 지원에 의해 상인과 수공업자가 유치되고 시전상인과 인근 수공업의 발달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하지만 부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오두막뿐이었고, 좌의정 체제공이 수원 번영책으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와를 값싸게 사게 함으로 수원 중심부와 전압에 기와 집으로 건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후 정조 17년(1793) 수원의 성내 인구는 1347호, 5천 여 명이었고 화성이 완공된 정조 20년(1796) 전후의 시기에는 성내 1천호, 성외 1만 5천여호의 민호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sup>9)</sup>

7) 수원문화원, 『수원 어제·오늘·내일』, 1998, pp.129

8) ibid. pp.162

9) 경기사학회, 『경기지역과 실학사상』, 1999, pp.93~94



〈그림 2-1〉 화성성역의례 화성전도, 1796



〈그림 2-2〉 읍지이전

## 제2절 20세기 근대 수원의 사회·경제 변화<sup>10)</sup>

19세기 중반까지 대도시의 면모를 유지하던 화성은 19세기 말에 들어 유수부에서 일개 군(郡)으로 도시 위상이 격화되었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타 지역의 도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었다. 1895년 화성 유수부는 전국적인 행정 개편의 일환으로 수원군으로 칭이 바뀌었으며, 1896년에는 경기도 관찰부(觀察府)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순종 4)에 경기도 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면서 수원면으로 바뀌었으며 도시의 위상도 결정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도시위상의 변화는 그대로 인구에 영향을 미쳐서 1899년 읍지에 기록된 성내 인구는 1천호가 안 되는 956호로 감소하였다. 1910년 9월 29일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한 직후 10월 1일 조선총독부는 종래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때 경기도청의 위치를 수원에서 경성으로 옮겼다.



〈그림 2-3〉 구한말의 화성행궁  
(수원시, 수원시도시계획 200년사, pp.33)



〈그림 2-4〉 1910년경 팔달문 풍경  
(수원시, 수원시도시계획 200년사, pp.33)

10) 수원시, 『수원시 도시변천사』, 2006, pp.40~68 참고

이후 일제는 1914년 도의 위치, 관할 구역, 그리고 부, 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개편을 단행하면서 수원의 관할 구역도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어 1931년 전국 41개 지정,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수원군은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때 수원군은 1읍 19면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1936년에는 수원읍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어 수원군의 일부 리가 편입되고 수원읍의 고등정, 영화정 등이 새로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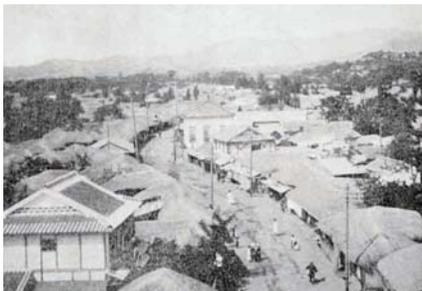
이렇게 일제 강점기 동안 수원의 행정구역은 확장되고, 남양군 및 지금의 의왕시도 포함하게 되어 수원의 영역은 확장된다. 또한 수원면 역시 읍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그 영역도 확대된다. 영역이 확장된 일제 강점기 수원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철도가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5〉 1920년대 수원읍  
(수원시, 수원시도시계획 200년사, pp.32)



〈그림 2-6〉 팔달문에서 본 1930년대 민가들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43)



〈그림 2-7〉 화성내부일대(1930)  
(수원시, 수원시도시계획 200년사, pp.35)



〈그림 2-8〉 수원시내 성안 중심가(일제시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46)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수원 시내의 중요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사라졌다. 화성 행궁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곽은 방치된 채 곳곳이 무너지고 훼손되었다. 화성행궁은 1910년 을사협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자혜의원이라는 병원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얼마 후 병원 시설은 벽돌조 2층 건물로 개조되었고 봉수당을 비롯한 행궁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객사는 병원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학교 건물로 전용되어 신평초등학교의 교사로 쓰였다. 화성의 여러 시설들 역시 방치된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한편 1942년 수원 시가지 계획안이 입안하여 수원읍회 등 의견을 통해 1944년 조선 총독부내 시가지 계획 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의결되었다. 이 계획은 계획목표 년도를 30년 후 인 1974년으로 설정하여 구역면적 29.39km<sup>2</sup>에 계획인구 100,00인으로 산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한동안 혼란의 겪어야 했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수립 만 1년이 지난 1949년 읍에서 시로 승격되었으며 이 당시 수원의 인구는 확인 된 것이 없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51년 5만2천425명이었으나 이듬해는 10만4천44명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림 2-9〉 수원천변 성안마을  
(수원시, 근대수원 100년, pp.50)



〈그림 2-10〉 팔달문 일대(일제시대)  
(수원시, 근대수원 100년, pp.50)



〈그림 2-11〉 日인이 경영하던 정미소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61)



〈그림 2-12〉 읍내의 일본인·중국인음식점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61)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고 국토는 초토화 되었다. 이 시기 수원에서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갔고, 일부 시민들은 좌·우익 간의 충돌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장안문과 창룡문이 파괴되는 등 화성 성곽에도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수원에 자리 잡은 피난민들로 인해 도시구조가 변화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에는 총 700여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주택은 당시 전체 6천761호 가운데 1천37호가 모두 파괴되거나 불에 타 버렸고 1천184호가 절반 정도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수원시청도 이때 모두 파괴되었고 수원세무서는 반파 당했다. 이 밖에 수원시방관리소, 공장, 종교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들도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과 자동차, 상하수, 도로 모두 많이 파괴되었다.



〈그림 2-13〉 1950년대 초 팔달문을 지나는 경찰과 시민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99)



〈그림 2-14〉 1950년대 매산시장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92)



〈그림 2-15〉 팔달문 정상에서 바라본 민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92)



〈그림 2-16〉 1950년대 수원시내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104)

전쟁이 종료되면서 재건의 노력이 활발해 졌으나 전쟁 중 난립한 판잣집이 도시미관상의 문제로 강제 철거되기도 하는 등 도시 복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1960년 4.19혁명을 겪었으며 1963년 12월 수원으로 경기도청 이전이 결정되면서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행정,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중심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원은 빠른 도시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림 2-17〉 1970년대 수원시가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125)



〈그림 2-18〉 팔달문 밖 시가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119)



〈그림 2-19〉 1960년대 신평동 일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126~127)



〈그림 2-20〉 1970년대 화서동 일대  
(수원시, 수원 도시변천사, pp.136~137)

# 제3절 20세기 초·중반 목재 수급 및 관련 법규의 변화

## 1) 목재 수급<sup>11)</sup> 및 관련 법규의 변화

### ○ 1930년 이전

- 1913년 일제 시가지 건축취체규칙, 1916년 조선총독부 건축표준을 공포 하면서 근대 도시계획이 일제에 의한 법적 규제를 통해 도입되기 시작한다. 일제의 영향은 도시계획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시기 일본은 산림 수탈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화로 인한 주택부족으로 소위 집장사가 등장하여 목조건축도 상품화되는 시기이다. 지식인들에 의해 문화주택이나 개량주택이 권장되나 서민층에선 여전히 전통방식에 의한 목구조주택을 많이 지었다.

### ○ 1931~1945년 이전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38년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수원에서는 이 시기 행궁자리에 신식공관이 들어서고 일본인의 금융시설과 병원, 관립·공립, 교육시설, 종교시설이 급격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의 혼란기에 접어든다. 반면 일제가 목재의 생산 및 소비를 강력하게 통제해 일반 가옥의 신축을 제한하면서 주택이 왜소화되고 가설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 1945~1961년 이전

-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권을 이양 받으나 실질적으로 해방 후에서 동란까지는 행정력의 공백기였으며 동란 이후에야 장기적인 계획을 실시 할

---

11) 김홍식, 「목재의 생산사 측면에서 본 한국 목조건축 미학의 변증법적 발전」, 대한건축학회지 36권 4호, 1992, pp.30~31

수 있었다. 또한 해방 이후 일제가 남벌했던 군용목재가 일반에 유통되고 국가 행정력의 미비로 산림의 마지막 남벌이 이루어져 일반 가옥이 일시적이지만 많이 지어지던 시기였다.

○ 1962년 이후

- 인구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기능의 변화시기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상업, 업무기능이 확산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표 2-1〉 20C 초·중반 수원의 사회·경제적 변화 내용

년도	시기	정치	경제	수원시 행정변화	관련법규	목재수급
1900	제 1 기	근대국가 수립지향 [1905] 무단통치기	자본주의 지향 [1905]	경기도청이전 수원→경성 수원면으로 명칭변경 [1910]	토지가옥 소유권 증명규칙 [1908]	금산,봉산벌 채로 미목대량생산 [1910]
1910		문화정치기	식민지 반봉건 경제확립	수원읍으로 승격 [1931]	주택개량 권장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산림의 수탈시기 -중질이하의 나무 유통
1920		제 2 기	문화정치기 [1931]	병참기지화에 의한 공업화	수원읍의 확장 [1936]	수원시가지 계획안 [1944]
1930	국군주의 체제기		미군정의 농지분배 [1945]	수원시로 승격 [1949]	불량주택건축 규제 [1940]	목재사용 통제 산림의 남벌을 통한 목재 공급 [1945]
1940	제 3 기	미군정기 [1945]	지주계층의 토지방매	경기도청 이전 서울→수원 [1963]	조선주택영당 창설 [1941] 주택국설치 긴급구호주택 건설 [1953]	
1950	제 4 기	정권인수 [1948]	토지개혁 실시		주택금융채제 정비 [1957]	
1960		6.25동란 [1950] 정책가동				목재고갈, 국가통제 [1960]

(이승중, 「20c 초·중반 경기도 중산지역에 나타난 민가의 변천 연구」, 명지대학교 석논, 2000, pp.18 참고)

## 제4절 시기구분

일반적으로 인구 및 구성계층의 변화, 행정구역의 변화, 건축 관련 법규 및 정책, 목재수급의 변화는 민가의 형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인구나 행정구역의 변화는 보다 간접적인 영향, 목재수급이나 관련 법규 등의 변화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sup>12)</sup>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옥의 건립연대 시기는 대략 1900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분포한다. 이에 수원의 인구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건축 목재 및 재료의 변화를 통하여 수원한옥의 시대구분을 하고자 한다.

수원이라는 지역을 한정하고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시기의 수원의 행정·인구 변화 및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규 및 목재수급 변화가 수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위해 시기를

- ① 1930년 이전
- ② 1931년~1945년
- ③ 1946년~1953
- ④ 1954년~1961
- ⑤ 1962년 이후

로 나누어 변화요인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그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대체로 앞 선 연구에서 분류한 시기구분을 따랐으며 단지 해방 후 기간을 6.25를 기준으로 다시 나누었다.<sup>13)</sup> 이것은 6.25 동란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기 보다는 수원 행정 및 인구의 흐름과 목재 수급량 및 토지개혁의 실시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1930년 이전도 10년 단위로 건축적 성격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을 가질 만한 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편의상 1930년 이전으로 분류하였다.

---

12) 이승중, 「20c 초·중반 경기도 중산지역에 나타난 민가의 변천 연구 : 사회 경제에 따른 변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논, 2000, pp.5

13) ibid. pp.17



---

## 제3장

# 수원 한옥의 공간 변용

제1절 배치 변용

제2절 평면 변용

제3절 소결



# 제3장 수원 한옥의 공간 변용

## 제1절 배치 변용

### 1. 배치유형 분석

개방된 농촌형 한옥과 달리 좁은 필지에 건물군이 밀집해 있는 도시형 한옥은 꺾음 형태로 주거가 형성된다. 꺾음집 형태로 안채가 존재하고 바깥채가 안채와 조합하여 가면서 ㄱ자, 튼ㄷ자, ㄷ자, 튼ㄱ자 집으로 배치형태가 결정된다. 비교적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수원의 한옥은 도시형 한옥에 가까운데, 이를 다음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 한옥의 배치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수원의 한옥은 ㄱ자의 안채만으로 구성된 주택이 23채(61%), ㄱ자의 안채와 一자의 바깥채가 조합된 튼ㄷ자형이 10채(26%), ㄱ자의 안채와 ㄱ자의 바깥채가 조합된 튼ㄱ자형이 2채(5%)로 배치되었다. 이외에 一자형과 ㄷ자형이 각각 1채씩으로 나타났다.

〈표 3-1〉 배치유형 분석

건립년도	一자	ㄱ자	튼ㄷ자	ㄷ자	튼ㄱ자	ㄷ자	계
	안채一	안채ㄱ	안채ㄱ 바깥一	안채ㄷ	안채ㄱ 바깥ㄱ	안채ㄱ 바깥ㄷ	
~1930	—	3	4	1	—	1	9
1931~1945	—	8	5	—	2	—	15
1945~1953	1	3	—	—	—	—	4
1953~1961	—	7	—	—	—	—	7
1962~	—	2	1	—	—	—	3
계	1	23	10	1	2	1	38



〈그림 3-1 배치 유형별 분포〉

배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조로를 따라 튼ㄷ자집 배치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자 인터뷰에 따르면 창룡대로의 현 ㄱ자집도 이전 원형은 바깥채가 있는 튼3자집으로서, 이는 인접도로가 생김에 따라 바깥채를 헐고 안채만 남은 것이었다. 정조로를 중심으로 대상인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원시 성역 내 상당수를 차지하는 ㄱ자집은 큰 도로와 일정 떨어진 곳이나 시장 주변에 분포해 소·중상인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좌향과 진입위치

도시형 한옥은 필지를 격자 형태로 분할한 필지에 건축하나, 분할된 필지 내에서도 좌향과 풍수를 고려해 건축한다. 한옥은 주거공간인 안채와 부수적인 생활공간인 마당과 바깥채 그리고 건축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외부담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한옥의 안채는 필지 내에서 가장 신성한 혈의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부속 건물이나 시설물은 안채를 보호하는 사(砂)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옥의 공간배치는 안채를 중심으로 삼고, 바깥채는 안채에 부수적인 건물로서 진입관계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이에 수원 성역 내 실측한 38채 한옥을 기준으로 좌향과 출입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좌향

좌향을 분석한 결과 남향쪽에 면해 있는 한옥이 20채(53%)에 달하며, 동쪽면에 12채(32%), 서쪽면에 4채(11%), 북쪽면에는 2채(5%)가 배치한다. 밝은 곳을 향한 곳이 길하다는 원칙에 따라 좌향은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다.

〈표 3-2〉 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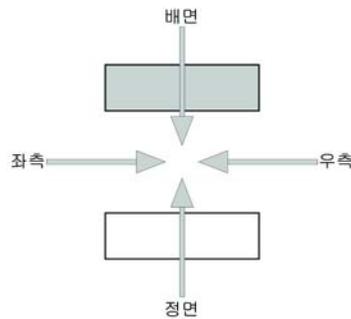
건립 년도	정남	남남서	남서서	정서	서서북	북북서	정북	북북동	동동북	정동	동동남	남남동	계
~1930	6	3										1	10
1931~ 1945	4	1		1		2			1	1	2	3	15
1946~ 1953		1	1			1			1				4
1954~ 1961	2	1									1	2	6
1962~			1									2	3
계	12	6	2	1		3			2	1	3	8	38

## 2) 진입 위치

진입 위치는 바깥 도로에서 집안으로 진입하는 방향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안채와의 관계에서 정면·좌측·우측·배면 진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에 정면 출입은 17채(45%), 우측이 13채(34%), 좌측이 5채(13%), 배면이 2채(5%), 기타 경우 출입이 1채(3%)로 나타났다.

〈표 3-3〉 진입 위치

건립년도	정면	좌측	우측	배면	기타	계
~1930	5	1	4			10
1931~1945	5	3	4	2	정우1	15
1946~1953	1	1	2			4
1954~1961	4		2			6
1962~	2		1			3
계	17	5	13	2	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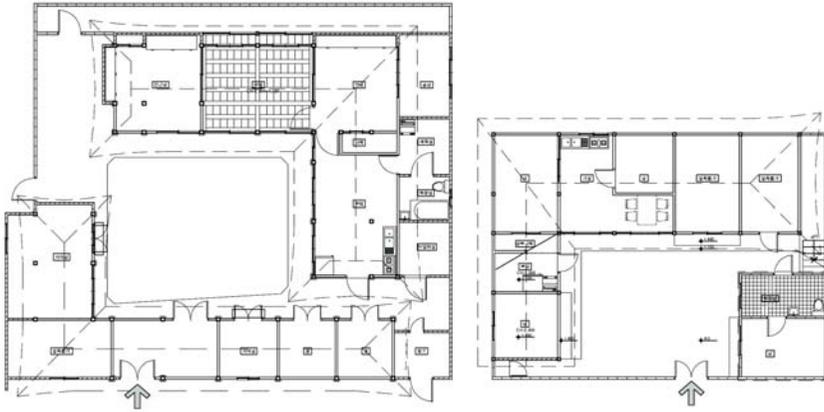


〈그림 3-2〉 진입 위치

### (1) 정면 진입

안채의 정면에 위치한 대문을 통해 진입해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배치 상 정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이에 바깥채를 통해 진입해 오는 것과 바깥채 없이 담장에 대문을 설치해 진입해 오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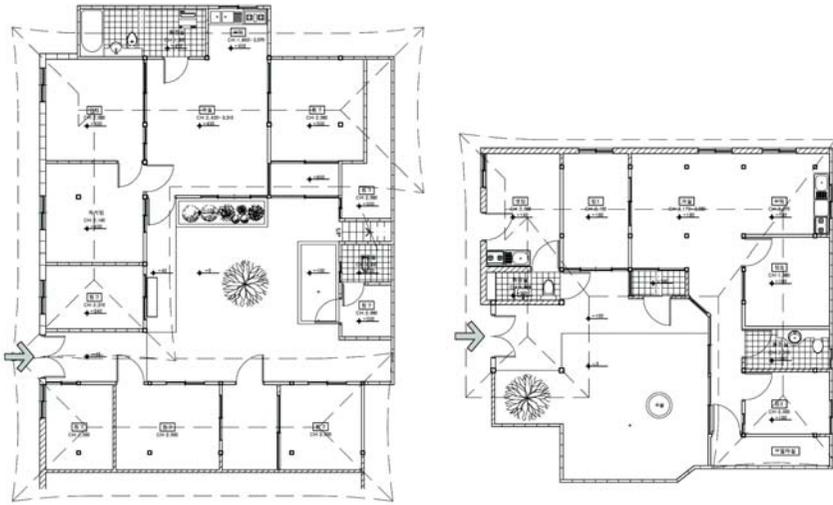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가옥은 대부분 바깥채가 없거나 문간 없이 담장에 대문이 달린 방식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마당 안쪽이 길에서 직접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 경우 정면이나 우측 진입이 많았다. 이는 도로가 생김에 따라 바깥채가 사라지거나 그 방향에 따라 진입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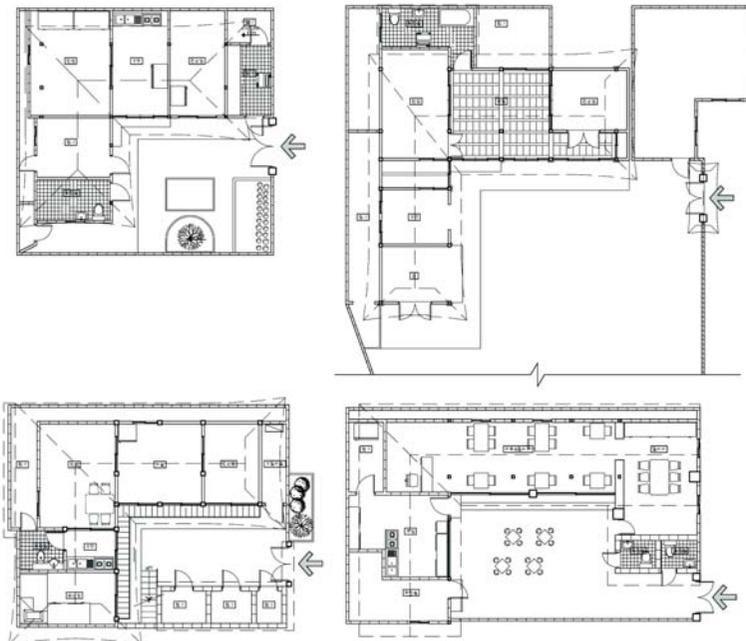
〈그림 3-3〉 정면 진입

## (2) 측면 진입

측면진입은 방향에 따라 좌측진입과 우측진입으로 나뉜다. 문간 없이 담장에 대문을 설치한 한옥에서 주로 나타난다. 수원 한옥의 안채는 부엌의 위치가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하는데, 우측진입의 경우 부엌을 마주하면서 진입한다. 좌측진입은 부엌간이 있는 채의 앞쪽 모서리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부엌간과 마주하기 위해 부엌의 위치를 우측으로 바꾸어 배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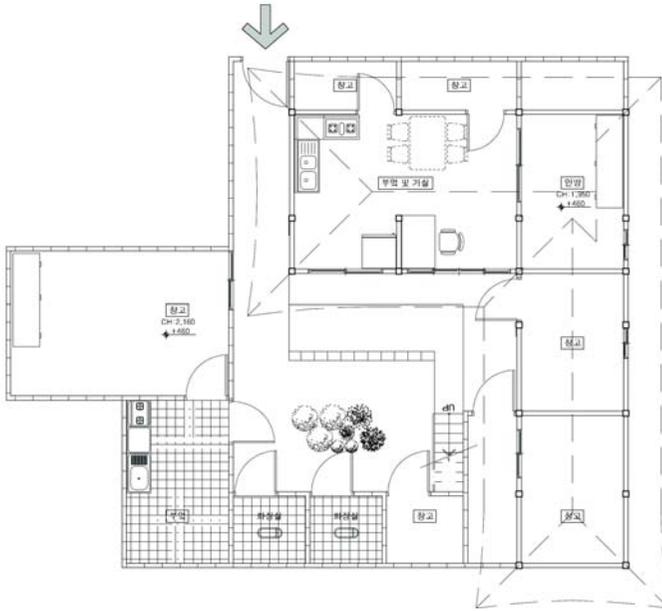
〈그림 3-4〉 좌측 진입



〈그림 3-5〉 우측 진입

### (3) 배면진입

배면진입은 소수의 가옥에서만 볼 수 있었다. 필지분할에 의해 북쪽에만 도로가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북쪽에 대문을 설치한다. 출입은 부의 앞쪽을 지나 진입하는데, 이때 좌향은 서향을 하게 된다.



〈그림 3-6〉 북측 진입

## 3. 접도수와 전면도로 폭

접도 수는 1면접도가 33채(87%), 2면접도가 5채(13%)로 나타났다. 한옥 진입부에 전합 전면 도로 폭은 2m대가 10채(26%), 1m대가 9채(24%), 3m대와 7m대가 5채(13%), 5m대가 4채(11%), 6m대가 3채(8%)로 다양하다. 그 중 2m이내의 도로는 총 19채로 50%를 점하고 있다.

〈표 3-4〉 전면도로 폭

건립년도	1m	2m	3m	4m	5m	6m	7m	8m	계
~1930	3	2	2	-	2	1	1	-	11
1931~1945	4	6	-	-	1	2	1	1	15
1946~1961	1	1	3	1	1	-	2	-	9
1962~	1	1	-	-	-	-	1	-	3
계	9	10	5	1	4	3	5	1	38

## 4. 대지 · 건축면적

대지면적은 평균 201㎡(60.80평), 건축면적은 65㎡(19.66평)이다. 101~150㎡은 14채(37%), 201~250㎡가 8채(21%)를 점하고 있다.

〈표 3-5〉 대지 면적

건립년도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	계
~1930	-	2	1	3	1	3	10
1931~1945	-	5	2	4	2	3	16
1946~1961	2	6	-	1	-	-	9
1962~	-	1	2	-	-	-	3
계	2	14	5	8	3	6	38

## 5. 건물동

흙벽구조로 되어 있는 한옥을 신축당시로 보고, 안채, 안채+바깥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안채와 바깥채에서 흙벽 구조를 채택했는데, 안채만으로 구성된 가옥은 26채(68%)로 신축당시 부속가옥 없이 안채만 건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채에 바깥채가 붙는 가옥은 12채(32%)이다.

〈표 3-6〉 흙벽구조 건물

흙벽구조 건물	안채만	안채+바깥채	계
호수	26	12	38

〈표 3-7〉 현존하는 건물

현존건물	안채만	안채+바깥채	안채+부속채	안채+바깥채+부속채	계
호수	9	4	16	9	38

조적조로 된 부분을 통해 증축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바깥채는 1채(3%)가 조적조로 증축되었으며, 24채(63%)에서 부속채가 조적조로 증축되었다.

## 6. 외부시설물

현존하는 대부분의 한옥은 두께 100mm의 속빈콘크리트나 시멘트블록으로 담장을 축조하였다. 하지만 일부의 한옥에서 두께150의 속빈콘크리트블록을 사용했다.

대문은 쌍여닫이의 대문과 반 여닫이의 쪽문으로 구분된다. 실측한 총 38채 중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가옥은 32채(87%), 반 여닫이의 쪽문은 4채(11%)를 점하고 있다. 목재로 제작한 대문은 19채(51%), 철재는 13채(35%)로, 쪽문은 모두 철재로 제작된 것이다.

〈표 3-8〉 대문 유형

재료	쌍여닫이(대문)		반여닫이(쪽문)		없음	계
	목재	철재	목재	철재		
개수	19	13	0	4	1	37

마당재료는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바닥이 21채(58%), 인터로킹 바닥은 10채(28%), 마사토 2채(6%), 타일 2채(6%), 벽돌 1채(3%)로 나타난다.

〈표 3-9〉 마당 재료

재료	시멘트몰탈	인터로킹	마사토	타일	벽돌	계
호수	21	10	2	2	1	36

## 제2절 평면 변용

### 1. 공간구성

#### 1) 건축년도

수원 화성 성역 내 실측 한옥 38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의 축년(築年)을 알 수 있는 상량문이 있는 가옥은 4채에 불과했다. 다음 표는 건축물대장이나 거주자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이후 증축 사항은 목재 기둥이나 흙벽구조가 아닌 조적벽을 통해 파악했다.

〈표 3-10〉 건축이력

건립 년도	~ 1930	1931 ~ 1945	1946 ~ 1961	1962 ~ 1970	1971 ~ 1980	1981 ~ 1990	1991 ~ 2000	2001 ~ 2010	2011 ~	계
신축	10	16	9	3						38
증축				1	5	4	7	1	2	20

한옥의 신축 시기는 1931~1945년이 16채(42%), 1930년 이전이 10채(26%), 1946~1961년이 9채(24%), 1962~1970년이 3채(8%)로 나타났다. 증·개축 시기는 거주자 20명중 90년대가 7채(35%), 70년대 5채(25%), 80년대 4채(20%) 순으로 응답하였다. 7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현대 주거 생활에 맞춰 요구되는 사항이 늘어나 도시 한옥은 많은 대수선, 개축, 증축을 지속해왔다. 특히 한옥의 많은 외부 공간이 실내화 되면서 생기는 변화가 큰데, 기존의 실들을 개별적으로 증축하거나 요구되는 용도를 덧붙여 증축하는 식이었다.

## 2) 한옥의 용도

한옥의 용도는 신축 당시 36채(95%)가 주거 목적이었다. 현재는 31채(82%)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자가 19채(61%), 세입자가 12채(39%)에 이른다. 주거용 이외에 식당, 카페, 상가, 문화센터, 점집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성역 내 실측한 38채 한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실측 한옥 상당수가 점집으로, 현대에 이르며 도시 한옥의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1〉 한옥의 용도

용도	주거			여관	식당, 카페	주거+상가	기타	계
	자가	임대	모름					
원형			36	1	1			38
현재	19	12			2	1	4	38

## 3) 형태

안채는 ㄱ자형이 36채(94%)에 이르며, 一자형·ㄷ자형이 각각 1채(3%)로 나타났다. 안채에서 단위공간별 크기가 후퇴간이나 측면으로는 확장이 있으나 수직 방향으로의 공간 증축은 없었다.

바깥채는 一자형이 10채(26%), ㄱ자형이 2채(5%), ㄷ자형이 1채(3%)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은 가옥은 25채(66%)에 달했다. 바깥채 역시 바깥채와 수직 방향으로 공간이 증축되기보다는 퇴칸이나 측면으로의 확장이 주를 이룬다. 또한 一자형의 바깥채가 ㄱ자로 수직 증축된 가옥도 1채 발견되었다.

〈표 3-12〉 안채와 바깥채 평면유형 변화

평면유형		一	ㄱ	ㄷ	口	없음
안채	원형	1	36	1	0	0
	변용	1	36	1	0	0
바깥채	원형	10	2	1	0	25
	변용	9	3	0	1	25

결과적으로 부지 내 증축되고 신축된 사항이 있더라도, 수원시 한옥은 대부분 ㄱ자형으로서 이는 서울형 민가 평면과 유사함을 보인다. ㄱ자형의 기본은 부엌+안방(귀움)+대청+건넌방 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에 부엌에 방 또는 찬방이 붙거나 건넌방이 추가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안방과 대청 사이에 옷방이라고 하는 방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강원·영서지방과 경기·동북부지방에서 보이는 평면인데, 수원에서도 옷방을 설치한 가옥이 있다. 옷방은 한 칸 정도의 규모로 마루에서 직접 출입하거나 안방에서 출입하며, 안방과 옷방 사이에는 개방할 수 있는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때에 따라 넓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 2. 안채의 공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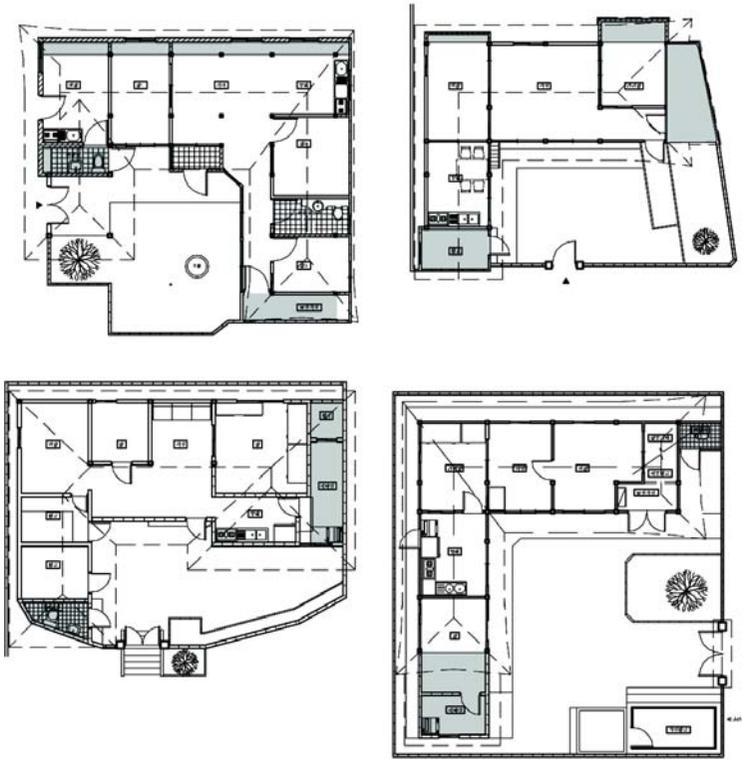
### 1) 증축 유형

#### (1) 수평적 확장(도리 방향으로의 증축)

도시 한옥의 증축방법에는 증축하는 방향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를 도리 방향, 배면으로의 증축, 마당으로의 증축으로 구분한다.

한옥에서는 부지의 여유가 있을 때 보 방향이 아닌 도리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길게 증축한다. 특히 ㄱ자형의 안채가 도리 방향으로 증축하면서 인접 대지

에 맞닿아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 할 경우 꺾어지는데, 이때 ㄱ자집의 안채가 ㄷ자나 ㄷ자로 변화한다. 증축되는 실을 보면, 주로 화장실이나 세탁실이며, 보일러실, 창고 등도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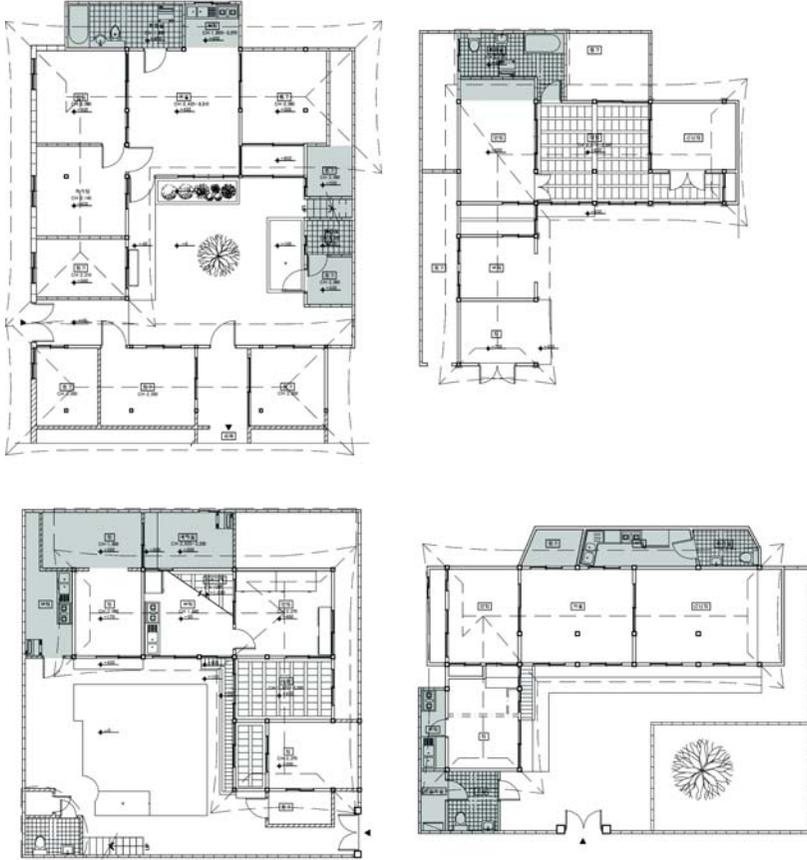


〈그림 3-7〉 도리 방향(측면) 증축

## (2) 배면으로의 증축

한옥의 마당은 건물의 중심으로서 지붕이 없는 방이면서 공간의 역할을 하는 주요 공간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둘러보는 목조의 미려함과 처마 끝을 들어 올리는 망와는 한옥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당을 비우고 배면으로 여유가 있으면 배면 쪽으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식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붕을 새로이 조성하지 않고 기존 처마 끝선까지 증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공간의 면적을 확장하여 최소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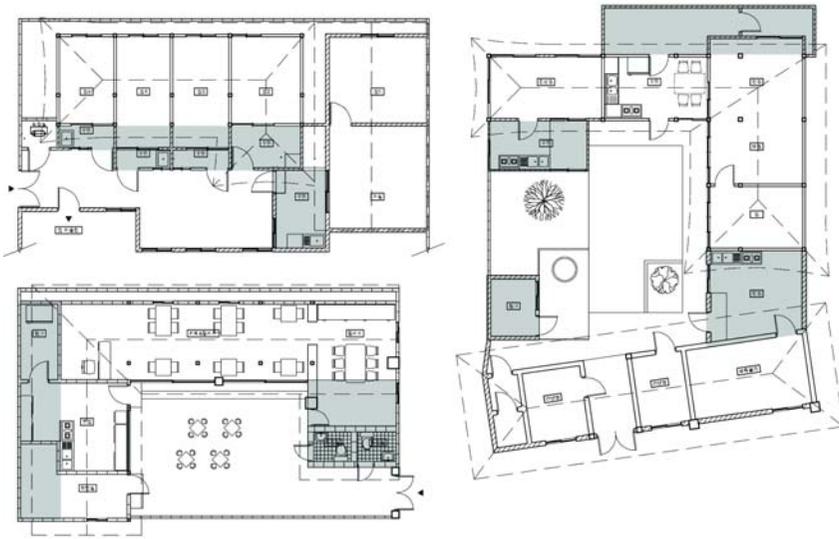
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독립적 실이 가능하도록 새로 지붕을 덧달아 빼낸 형식으로 시멘트벽돌이나 속빈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조적 방식으로 담장까지 구축해 간다. 지붕은 기존 한식지붕이 아닌 간이식으로 트러스나 각재를 이용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형성한다.



〈그림 3-8〉 배면 증축

### (3) 마당으로의 증축

측면이나 배면으로의 공간이 없을 경우, 마지막 남은 공간인 마당으로의 증축을 행하고 있다. 한옥의 중심인 마당으로의 증축은 단아한 한옥의 맛을 떨어뜨리고 마당이 가지고 있는 틀을 파괴시킨다. 마당 쪽으로의 증축은 대부분 물을 쓰는 공간인 욕실, 변소, 주방 등의 실을 확보하거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주거평면을 개조한 경우이다.



〈그림 3-9〉 마당으로 증축

## 2) 실별 크기변화

안채의 단위공간별 크기를 분석해보면, 과거 규정된 칸의 크기를 도리 방향 또는 배면, 마당으로 확장해 증축함으로써 각 방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단위공간별 원형 및 현재 변용된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개별 한옥의 각 방 보·도리 방향 치수를 도출해 평균한 치수이다.<sup>14)</sup>

14) 본 본문의 표에서는 건넌방2와 찬방2까지 표기하나, 더 확장된 사항은 부록 참고

〈표 3-13〉 실별 크기 분석: 거실 및 방의 원형 및 변형 크기

실별 평균크기	L	R				
	거실	안방	건넌방1	건넌방2	찬방1	찬방2
원형	36 × 35	27 × 34	25 × 24	25 × 28	28 × 25	24 × 24
변형	38 × 37	31 × 42	29 × 33	28 × 36	33 × 29	38 × 22

우선 거실과 방을 살펴보면, 거실은 평균 3,600 × 3,500(mm) 정도, 대략 12자 × 12자의 원형을 가진다. 이후 배면의 담장까지 확장하거나 또는 거실이 안방과 건넌방을 포함해 크게 확장되며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형의 평균 치수가 일정 늘어난 것으로, 대개 이전의 거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은 대체로 그 크기를 넓혀 사용하고 있다. 안방은 2,700 × 3,400(mm), 곧 9자 × 12자가 원형 크기로 보이며, 이후 배면으로 담장 끝까지 모두 확장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건넌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찬방의 경우 부엌 밑으로 확장하며, 이 또한 담장까지 최대한으로 증축해 방의 크기를 넓혔다.

〈표 3-14〉 부엌·화장실·샤워실·창고의 원형 및 변형 크기

실별 평균크기	부엌		화장실	샤워실	창고
	재래식	입식(실내)			
원형	27 × 33	-	-	-	-
변형	32 × 33	29 × 34	24 × 19	24 × 32	22 × 26

부엌은 안방에서 꺾인 부분에 위치해 안방과 같은 폭의 원형을 가진다. 현대에 이르며 그대로 재래식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크기를 배면 담장까지 증축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거실과 부엌이 연계되는 생활 방식에 따라 부엌이 실내화 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대청의 배면에 따로 증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한옥의 대청과 담장까지의 길이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며, 평균 2,900 × 3,400(mm)의 크기를 보인다.

화장실과 샤워실, 창고는 한옥 안채의 원형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들로써 현대 삶에 이르러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건넌방이나 찬방을 따라 추가 증축되는 등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는 거주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안방만 거주하고 나머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 3) 실별 위치변화

각 단위공간별 위치는 이후 실의 크기를 늘리거나 실내화 되는 양상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이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원형과 이후 변형 한옥의 배치를 명확히 그려볼 수 있다.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은 ㄱ자형으로, 부엌+안방(꺼움)+대청+건넌방 순으로 연결됨을 앞서 밝혔다. 이에 건넌방이나 찬방이 확장된다. 본 위치 분석에서는 위의 원형을 기준으로 위치를 번호로 코드화해 이후 실별 변형된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코드 0의 위치에 주로 담장이 면한 바, 안채 실별 위치를 이와 같이 보고 분석하였다.



〈그림 3-10〉 단위공간별 위치와 연계 분석

〈표 3-15〉 위치 분석: 거실 및 방의 원형 및 변형 위치

실별 위치	L		R									
	거실		안방		건년방1		건년방2		찬방1		찬방2	
원형	23	12	12	12	34	12	45	12	12	34	12	45
변형	23	12	12	12	34	12	45	12	12	34	12	45
	23	02	02	02	34	02	45	02	02	34	02	45

실별 위치 분석은 크기 변화 분석과는 다르게 값의 평균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다수를 평균으로 본다. 이에 변형된 위치 분석은 1순위(소극적 변형)와 2순위(적극적 변형) 위치를 함께 보도록 한다. 안채의 실별 위치 분석에 있어

거실과 안방, 건넌방, 찬방의 위치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증축됨에 따라 배면의 담장까지 확장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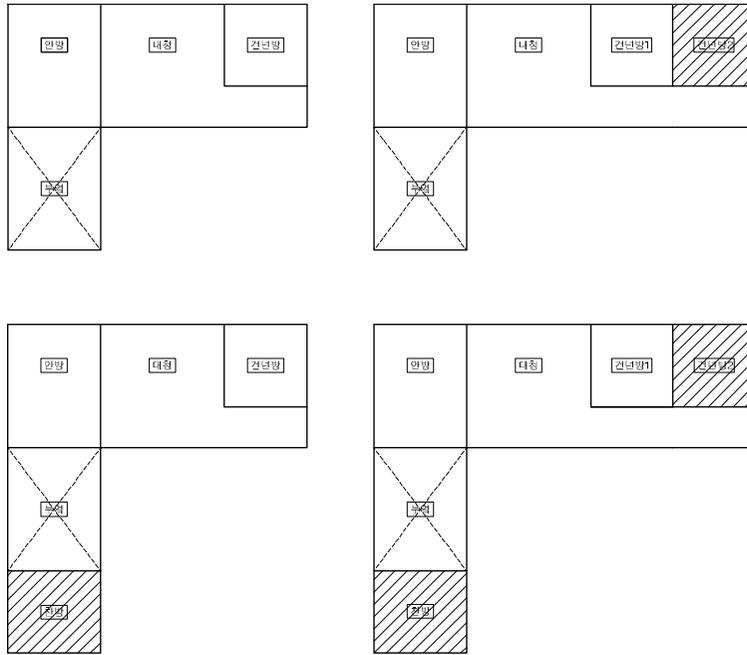
<표 3-16> 부엌·화장실·샤워실·창고의 원형 및 변형 위치

실별 위치		부엌				화장실		샤워실		창고	
		재래식		입식(실내)							
원형		12	23	-	-	-	-	-	-	-	-
변형	1	12	23	23	01	12	45	12	23	45	23
	2	02	23	23	12	23	01	45	23	45	12

부엌의 경우 기존의 재래식 부엌에 아궁이만 없앤 채 그대로 사용하거나, 바닥을 높여 실내화해 안방에 문을 달아 바로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는 거실의 배면으로 증축해 부엌을 만들거나 아예 거실에 싱크대를 두어 부엌으로 사용한다. 이는 앞서 밝혔듯 거실과 부엌이 연계되는 현대 생활방식에 따른 것으로 그럴 때 기존 부엌 자리는 시멘트몰탈 바닥의 샤워실이나 세탁실로 그 용도가 바뀐다. 부엌이 원형 그대로의 자리를 유지할 경우 샤워실은 화장실과 합쳐져 건넌방이나 찬방 옆으로 증축해 설치된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부엌과 거실의 기능이 복합되며 그 부근에 함께 증축해 사용한다. 이는 현대 생활의 주 공간이 거실 중심으로서 부엌과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상이 한옥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수원 한옥의 원형과 변형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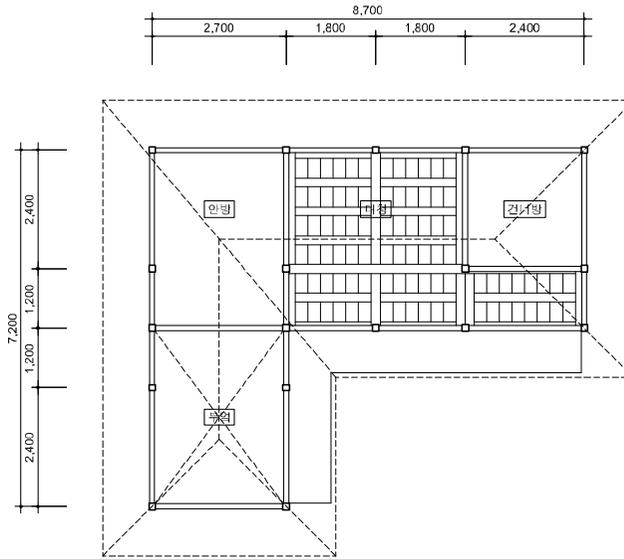
위의 실별 크기 및 위치 분석에 따라 수원 한옥의 원형 및 변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7자형으로서 부엌+안방(귀움)+대청+건넌방을 원형으로 건넌방이나 찬방이 추가되는 식으로, 위치 분석 결과대로 각 실별 변화가 대부분 배면 담장까지 증축되는 정도이기에 이는 아래 <그림 3-11>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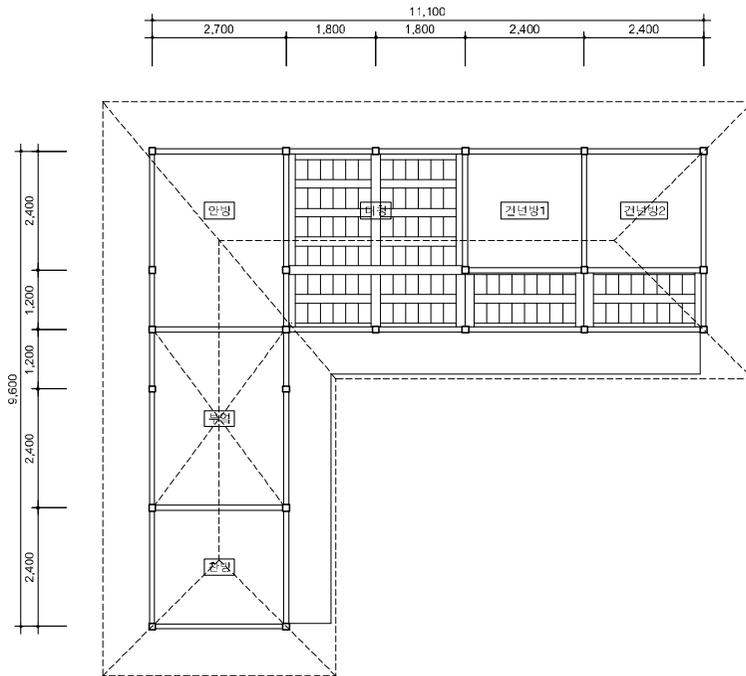
〈그림 3-11〉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 및 변용

또한 크기 분석에 따라 각 방들의 표준 크기를 적용해 보았을 때 좀 더 정확한 평면 원형이 드러나는데, 한 자를 약 300mm로 보았을 때 총 7칸의 다음과 같은 안채의 평면이 그려지게 된다.

원형 기본형



원형 확장형



<그림 3-12>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 기본형과 확장형

### 3. 안채의 영조척(용척)

영조척(용척)은 건물 건립 시에 사용하는 일정한 표준의 척도로, 건축계획과 시공에서 사용된 규범적인 모듈개념이다. 용척은 영조척의 크기와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영조 당시의 건축구성과 건축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안국진 외, 2013) 용척은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m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m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3mm로 통용되었다. [두산백과]

일반적으로 한옥에서의 용척 분석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둥 간격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재의 단면 치수를 분석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둥 간격을 중심으로 용척을 추정하였다.(안국진 외, 2013) 분석 결과, 수원 한옥에 사용되었던 영조척은 평균 300.14mm로 나타났다. 이는 1905년 도량형 규정에 따라 척관법의 기본단위인 303mm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4. 안채 방 개수의 변화

안채의 공간구성은 방과 마루, 부엌으로 구분되나 방의 개수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난다. 한옥 건립당시 방은 3개(61%)가 주를 이루고, 2개(13%), 4개(11%)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안채의 방 개수

건립년도	추정불가	2	3	4	계
~1930	4	2	2	3	11
1931~1945	2		12		14
1964~1961		3	7		10
1962~			2	1	3
계	6	5	23	4	38

가족 수가 줄고 또한 늘어나는 현대사회의 집기류들을 놓을 수 있도록 방을 넓게 쓰기 위해 2개의 방을 1개의 방으로 확장하기도 하며, 임대를 놓아 세수 입을 늘리기 위해 방을 1~2개씩 증축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방이 3개인 한옥이 18채(60%→50%)로 줄어든 반면, 방의 수가 4개인 한옥이 4채→9채(11%→25%), 2개인 한옥이 5채→6채(14%→17%)로 조금씩 변화하였고, 방이 1개(3%)인 한옥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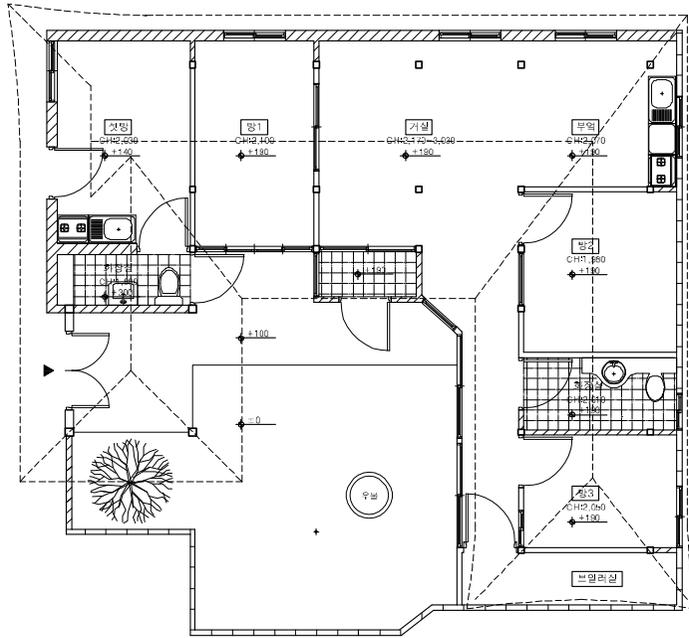
〈표 3-18〉 안채의 방 개수 비교

방 개수	미확인	1	2	3	4	5	계
원형	6	0	5	23	4	0	38
현재	2	1	6	18	9	2	38

## 5. 공간의 실내화

### 1) 안채에 현관설치

앞서 언급한 대로, 본래 한옥이 외부 출입이 많은 것에 비해 현대 주거 생활에서는 상당 부분 실내화를 요구함에 따라 한옥에 많은 변용 사항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옥이라면 본래 뒷마루나 대청에서 신을 벗고 실내로 들어서지만, 38채의 조사가옥 중, 현관을 설치한 경우가 7채로 18%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관이 아예 독립실로 존재한 경우는 개조가 심하게 이루어진 가옥으로 2채에 불과하며, 나머지 5채는 부엌의 모퉁이에 신을 벗을 수 있을 작은 공간을 두어 부엌에 현관을 겸하고 있다. 안채에 현관을 설치한 가옥은 변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가옥으로서, 현관과 더불어 부엌과 화장실 등도 실내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아래 허의대 가옥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안방과 부엌의 위치가 바뀌고 거실과 부엌이 한 공간으로 합쳐진 형태이다.



〈그림 3-13〉 안채의 실내화

## 2) 부엌의 실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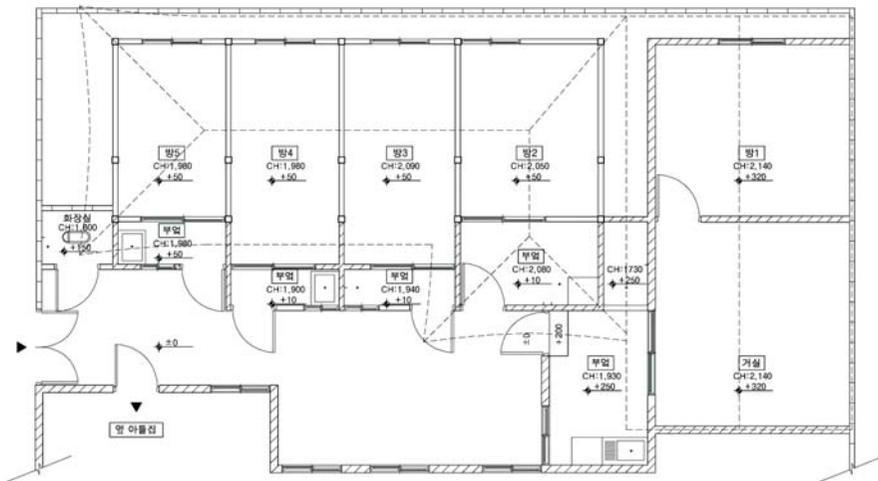
기존 한옥의 부엌은 흙바닥에 부뚜막을 설치하여 신을 신고 생활하였으나, 현대화가 진행되며 많은 변화가 생겼다. 현재 한옥에서 변화된 부엌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예전과 동일한 위치에 흙바닥 대신, 방수처리를 한 후, 타일이나 모르타르로 마감한 것이다. 마당의 외기에서 직접 부엌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내부에 통하는 문을 따로 설치하여 앞서 현관 겸 부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리만 할 수 있는 반 실내공간으로 식사는 방에서 좌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5]에서 보면, 부엌의 높이를 방과 동일하게 들어올려, 바닥에 온수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림 3-14]에서 안방과 부엌이 구분되었던 것과는 달리, 부엌과 안방사이에 미서기 문을 설치하여, 문을 열었을 때 안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안방은 주거생활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킨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된다. 실내화는 식당, 안방, 거실로 이어지면서 점차 하나의 공간처럼 가능하도록 변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한 지붕 아래의 안채에 2~4개의 부엌을 두는 경우도 있다. 방+부엌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최소 단위로서, 이는 원룸이나 여인숙처럼 세를 놓는 수익형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다.



〈그림 3-16〉 부엌의 분할

결과적으로 재래 부엌을 바닥 마감재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10채(27%), 실내로 개조한 경우가 18채(49%)에 이른다. 임대를 위해 부엌을 따로 설치한 경우는 7채(19%)로 나타났다.

〈표 3-19〉 부엌의 변용

개수	0	1	2	4	계
부엌, 외부에서 출입		10	3	1	14
부엌, 실내에서 출입		12	2		14
식당, 실내에서 출입		6	1		7
부엌, 안채에서 소멸	2				2

### 3) 안채에 화장실 설치

신축 당시 화장실은 안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본래 도심형 한옥의 경우 바깥채 끝자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살림채의 위생배관이 설치와 방수공사의 시공성능이 향상되면서 화장실을 실내에 두게 된다. 화장실은 기존의 공간을 이용하기 보다는 공간 확장을 목적으로 새로 증축해 설치한다. 앞서 밝혔듯 위치상 건넌방이나 찬방을 따라 추가 증축하거나, 현대 일반 주거 평면처럼 거실 배면에 생겨 거실, 부엌, 안방과 통합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한 경우는 12채(32%)이며, 외부에서 통하도록 설치한 경우는 15채(40%), 화장실을 두지 않은 경우는 8채(21%)이다. 이외에 2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한 가옥은 9채(24%)로, 임대 세수입을 목적으로 세대 당 1개의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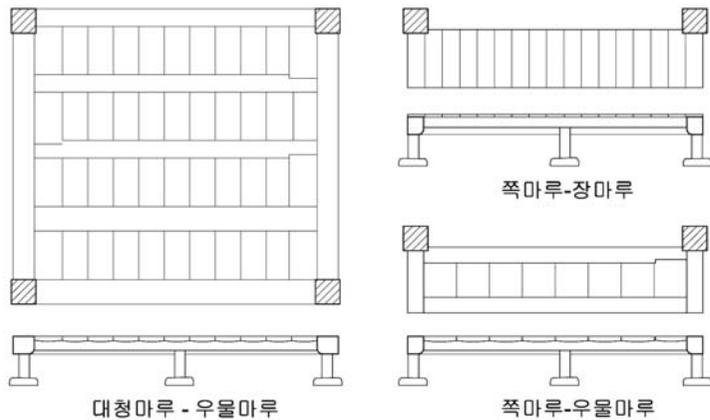
〈표 3-20〉 안채에 화장실 설치

화장실 개수	1	2	3	4	계
내부에서 출입	9	2			11
외부에서 출입	11	1		1	14
없음	8				8
기타	(내부1+외부1=2채), (내부1+외부2=2채), (내부3+외부1=1채)				5

## 4) 마루의 변화

### (1) 대청마루의 소실

한옥에서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우물마루의 대청은 실내화 되면서 사라졌다. 바닥에 온수난방을 설치하면서 시멘트몰탈 위 장판 마감을 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물마루가 철거된 가옥은 25채(66%)이며, 옛 그대로 마루를 남겨둔 가옥은 13채(44%)이다.



〈그림 3-17〉 마루의 종류

### (2) 쪽마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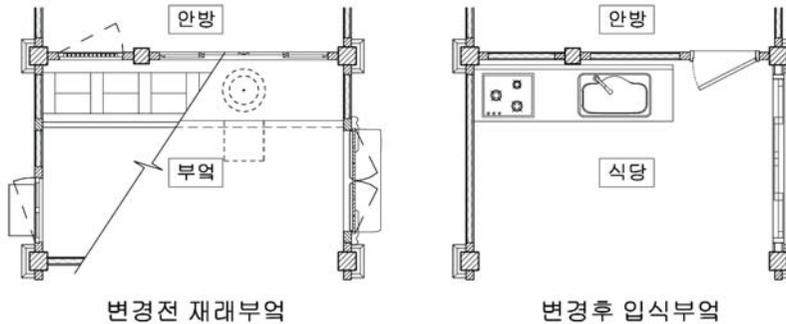
현대 생활에 이르며 실내공간이 협소해 뒷마루를 없애고 방을 확장하게 되는데, 마당 방향에 전이공간으로 쪽마루를 설치한다. 쪽마루에 걸터앉아 신을 신거나 신발장 대신 쪽마루 밑에 신발을 보관하기도 한다. 38채 중 쪽마루를 설치한 경우는 15채(40%)이다. 쪽마루 설치 위치는 방 앞이 19채(60%), 거실 앞이 7채(22%)이며, 부엌 앞이 3채(9%) 순으로 나타났다. 방 앞에 쪽마루를 설치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는 특히 방마다 세를 줄 경우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 역할을 대신한다.

〈표 3-21〉 쪽마루 설치 위치

위치	거실	식당	부엌	방	화장실	다용도실	계
개소	7	3	1	19	1	1	32

## 5) 다락 철거

한옥 원형에서는 부엌의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면서 상부다락을 철거한 가옥이 많다. 전체 38개 가옥 중, 25채(66%)의 가옥에서 부엌 아궁이 상부의 다락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재래부엌과 입식부엌

## 6) 난방 재료의 변화

기준에 난방은 부뚜막에 장작을 난방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도시가스 보일러가 28채(74%)로 가장 많고, 연탄보일러가 5채(13%), 기름보일러가 2채(5%)로 나타났다.

〈표 3-22〉 현재 난방 재료

종류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LPG가스	심야전기	연탄	불분명
계	2	28	1	1	5	1

## 제3절 소결

수원 한옥의 원형과 변용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자 배치와 평면으로 나누어 공간을 분석하였다. 화성 성역 내 총 38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수원 한옥의 안채 원형은 서울형 민가 평면과 유사한 ㄱ자 꺾음집으로 나타났다. 38채 중 36채(94%)가 ㄱ자형의 안채를 가지며 그 중 ㄱ자의 안채와 ㅡ자의 바깥채가 조합된 ㄷ자형이 10채로 나타났다. 안채의 경우 단위공간별 증축 사항이 있긴 하나 원형을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한옥의 용도는 신축당시 36채(95%)가 살림집으로 지어졌으며, 현재는 31채(82%)가 살림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평균 201㎡(60.80평), 건축면적은 65㎡(19.66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한옥으로서 격자 형태로 분할한 필지에 건축하지만, 분할된 필지에도 좌향과 풍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좌향은 남쪽으로 면한 한옥이 20채(53%), 동쪽면이 12채(32%)로 배치하고 있다. 진입은 주택을 바라보고 정면 출입 17채(45%), 우측이 13채(34%)로 나타났다. 접도 수는 1면접도가 33채(87%), 2면접도가 5채(13%)이며, 전면 도로 폭은 2m대가 10채(26%), 1m대가 9채(24%)로 대체로 좁은 골목길에 면해 있다.

수원 한옥의 수원 한옥의 안채 평면은 ㄱ자형으로 부엌+안방(꺾음)+대청+건넌방 순으로 연결된다. 원형의 모습이 현대에 이르며 방을 넓히거나 새로운

용도의 실을 추가하는 등 증축 사항이 보이는데, 크게 도리 방향으로의 증축, 배면으로의 증축, 마당으로의 증축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리 방향(측면)으로의 증축은 주로 방이나 거실의 크기를 넓히고자 하는 경우이며, 배면으로는 대청을 거실로 사용하며 부엌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새로이 부엌을 만들고자 할 때 주로 담장까지 증축했다. 한옥의 주요 공간인 마당으로의 증축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 경우 방별로 세를 놓거나 할 때 각각의 부엌을 만들고자 마당 쪽으로 물을 쓰는 실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어 실별 크기와 위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수원시 한옥의 원형이 밝혀졌다. 영조적은 평균 300.14mm로 나타났다. 이는 1905년 도량형 규정에 따라 척관법의 기본단위인 303mm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역 내 38채의 단위공간별 평균을 통해, 대청은 평균 12자×12자, 안방은 9자×12자, 부엌은 9자×12자, 그리고 건넌방과 찬방은 각각 8자×8자 크기의 원형이 나타났다. 현대에 이르며 각 실들은 넓어졌으나 이는 주로 담장까지 최대한 확장한 크기 이기에 현대 한옥의 표준 크기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실별 위치는 ㄱ자 꺾음집의 원형에서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배면의 담장까지 그 크기를 확장한 정도이다. 특히 부엌의 경우 대청을 거실로 사용하면서 배면으로 증축해 확보된 공간을 실내 부엌으로 사용하고, 기존 재래식 부엌이 있던 자리에는 시멘트몰탈 바닥의 샤워실이나 세탁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안채 원형에는 없었던 화장실이나 창고 등은 현대 생활에 새롭게 요구되면서 건넌방이나 찬방 옆에 추가로 증축하고 있다.

증축 방식을 살펴보면, 흙벽구조로 증축하는 경우와 조적방식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나뉜다. 기존의 흙벽구조에서 방을 넓히거나 현대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욕실, 창고 등의 새로운 실을 추가할 때, 주로 시멘트벽돌이나 속빈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한 조적 방식으로 구축했다.

가족 수가 줄고, 늘어나는 집기류를 방에서 수용하다 보니 방의 면적과 개수 또한 변하였다. 방이 3개인 한옥이 23채에서 18채로 10%감소한 반면, 방의수가 4개인 한옥이 4채→9채로 14% 증가했다. 이는 임대료를 놓아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으로 1~2개씩 늘린 것이다.

이러한 방의 통합이나 증축 등 공간 변용 사항의 대부분은 결국 현대 주거 생활이 실내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본래 한옥이라면 텃마루나 대청에서 신을 벗고 실내로 들어서지만, 안채에 따로 현관을 설치한 가옥이 7채(18%) 생겨났다. 부엌 또한 재래 부엌을 타일 마감재만 바꿔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10채(27%)인 반면, 18채(49%)의 한옥은 실내로 개조하였다. 안채에 화장실을 설치한 가옥은 27채(71%)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한옥에서 외부에서의 진입함이 여름이나 겨울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는 바, 점차 내부로 통합된 주거 환경이 한옥에도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제4장

# 수원 한옥의 구법 변용

제1절 기단부 변용

제2절 벽체부 변용

제3절 지붕부 변용

제4절 소결



# 제4장 수원 한옥의 구법 변용

## 제1절 기단부 변용

### 1. 초석

초석은 사각형의 가공석이 14채(58%), 자연석이 10채(42%)로 나타났다. 초석에 소정의 모를 접는다거나 쇠시리 등의 정교한 조각 없이 흑두기 석재를 사용, 또는 거친 정다듬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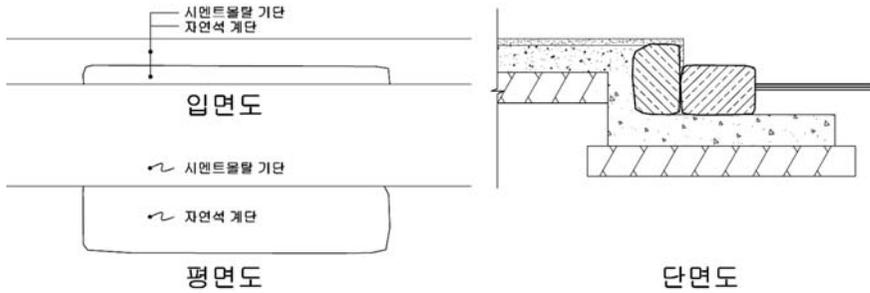
〈표 4-1〉 초석 유형

건립년도	자연석	가공석			미확인	계
		사각	사각 +다각	원형		
~1930		6			4	10
1931~1945	6	3	1		5	15
1946~1953	1			1	2	4
1954~1961	3	1			2	6
1962~		2			1	3
계	10	12	1	1	14	38

### 2. 기단

조사대상 가옥 중 기단이 없는 가옥은 3채(8%)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35채(92%)의 가옥에서는 모두 기단을 형성하고 있다. 기단 높이는 평균 127mm로, 정면으로 향한 면이 300mm정도로 뒤뿌리가 긴 자연석을 외벌대로 형성한다. 기단 바닥은 흙바닥이나 강회바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현재는 36채(95%)가 시멘트몰탈, 2채(5%)의 가옥이 소형고압블록으로 본래의 기단

마감재를 추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연석 기단 사이로 흠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출물탈로 채우고, 표면을 모두 시멘트물탈로 마감하여 기단 구조마저 확인이 어렵다. 하인방 하부고막이 외벽선에서 기단면 끝선까지 1/50정도의 물매로 시공하였다. 기단 내밀기는 평균 887mm정도로 나타났으며, 보통 처마선 안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처마선(지붕 내밀기 평균 966mm)보다는 짧다.



〈그림 4-1〉 기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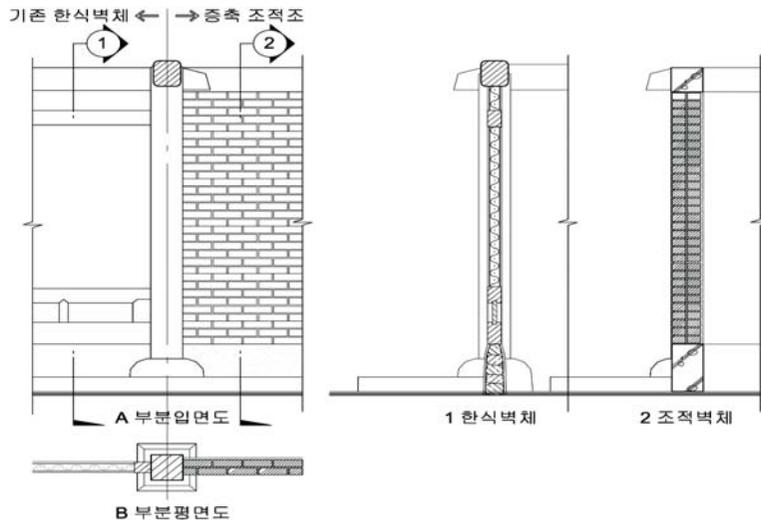
## 제2절 벽체부 분석

### 1. 기둥

기둥은 총 38채 조사 가옥 중 34채에서 각기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면이 평균 131.18mm이다. 기둥 모서리에 모접기나 쇠시리 등의 조각은 없다. 원기둥을 사용한 가옥은 1채에서 확인되었으며, 직경은 80mm이다.

### 2. 외벽

외벽은 본래 흙벽에 회반죽 마감으로, 흙벽의 두께는 평균 103.45mm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벽은 흙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증축시 배면의 인접대지 경계선인 담장까지 1.0B 시멘트 벽돌이나 4인치 속빈콘크리트블록을 쌓아 시멘트몰탈로 마감한다. 담장이 주로 속빈콘크리트블록의 조적방식인데, 담장 개보수 시기에 맞춰 증축 행위를 할 경우 담장재료와 동일한 속빈콘크리트블록으로 시공한 것이다. 일부 샌드위치 패널이나 합판으로 증축한 가옥도 있다.



〈그림 4-2〉 조적벽체 증축

마감은 기존 흙벽일 경우 회반죽마감으로 보수하기도 하고 모르타르마감을 하기도 하였다. 조적벽체일 경우, 시멘트몰탈 마감에 수성페인트 칠이 일반적이지만, 물을 사용하는 공간(화장실)에서는 외벽을 도자기질 벽돌타일붙임을 하거나 치장벽돌쌓기도 한다. 이외에 부엌의 살창이 있던 곳을 창이나 합판으로 벽을 막아 사용하거나, 부엌 원래의 기본 벽체에 도료 칠로만 도장하기도 한다.

## 제3절 지붕부 분석

### 1. 가구

가구 구조는 대청과 부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엌이 대부분 개조되어 가구 구조를 확인할 수 없고, 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지붕 가구는 전면 해체보수하지 않는 한 신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다. 안채 대청에서 확인한 바로, 1고주5량이 16채(64%), 평사량이 3채(12%), 5량이 2채(8%), 2고주5량과 3량이 각각 1채(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원 성역 내의 한옥이 대부분 1고주5량 가루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한옥이 신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신축 시 초가였던 3량이나 평4량 구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표 4-2〉 지붕 가구 구조

건립년도	삼량	평사량	오량	1고주오량	2고주오량	미확인	계
~1930	1			7		2	10
1931~1945		3	2	5		5	15
1946~1953				1		3	4
1954~1961				1	1	4	6
1962~				2		1	3
계	1	3	2	16	1	15	38

### 2. 서까래

서까래는 원형의 형태가 32채(84%), 각형이 2채(5%)로 나타났다. 홀처마는 18채(49%), 겹처마는 17채(45%)를 점하고 있다. 이중 부연이 각형의 형태가 15채(40%)를 점하고 있다.

〈표 4-3〉 서까래 형태

건립년도	홀처마		겹처마			미확인	계
	원형	각형	원형+원형	원형+각형	각형+각형		
~1930		1		6		3	10
1931~1945	8		1	6			15
1946~1953	4						4
1954~1961	5			1			6
1962~				2	1		3
계	17	1	1	15	1	3	38

서까래는 평균 직경 D95.25mm @301.76mm 간격이며, 부연은 각형으로 단면의 폭이 평균 75.7mm이다. 지붕 내밀기는 외벽마감에서 처마끝선까지 평균 966mm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천장

천장은 방과 거실, 부엌에 따라 다르다. 방은 신축당시부터 종이 도배했던 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부엌은 연등천장으로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던 것이, 실내화로 개조하면서 대부분 합판으로 천장을 만들고 종이도배 하였다. 반면 거실은 바닥에 있어 대청을 걷어내고 온수난방으로 설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실내화가 진행되었지만, 천장은 미려한 지붕가구구조를 노출시키기 위해 25채(66%)의 가옥에서 연등천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13채(34%)의 가옥에서는 합판으로 천장을 막고 종이 도배하였다.

## 4. 지붕

현재 지붕은 우진각지붕이 16채(44%), 팔작지붕이 14채(39%), 맞배지붕이 3채(8%), 우진각+맞배가 2채(6%)를 점하고 있다. 현 우진각지붕은 원래 초가였던 것이 현재는 시멘트기와나 함석지붕으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4〉 지붕 형태

건립년도	팔작	맞배	우진각	팔작+우진각	우진각+맞배	미확인	계
~1930	6	1	2			1	10
1931~1945	7	1	6	1			15
1946~1953			3			1	4
1954~1961		1	4		1		6
1962~	1		1		1		3
계	14	3	16	1	2	2	38

지붕재료는 현재 시멘트기와가 21채(60%), 함석지붕이 8채(22%), 한식기와가 5채(14%)를 점하고 있고, 슬레이트 1채, 아스팔트싱글이 1채로 나타났다. 기존의 한식기와가 시멘트기와나 함석지붕으로 변용된 것이 상당하다.

〈표 4-5〉 지붕 재료

재료	함석	슬레이트	시멘트	한식	아스팔트싱글	미확인	계
수량	8	1	21	5	1	2	36

## 제4절 소결

수원 한옥의 구법에 있어 이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각각의 원형과 현재 변용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단부에 있어 초석은 정교한 조각 없는 흑두기 석재나 거친 정다듬 가공을 보인다. 기단은 대부분의 가옥에서 형성하고 있는데, 본래 흙바닥이나 강회바름을 현재는 시멘트몰탈 마감으로 변용한 경우가 상당하다. 지붕 내민길이를 늘리거나 차양을 설치함에 따라 기단을 시멘트 몰탈로 추가 시공해 기단 내민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며, 현재는 평균 887mm로 나타난다.

벽체부는 크게 기둥과 외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원 성역 내 대부분 가옥이 한 면 평균 131.18mm의 각기둥을 사용하였다. 이에 큰 변용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면 증축 시 기둥에 합판을 덧대거나 하는 등이었다. 외벽의 두께는 평균 103.45mm로, 신축 당시 흙벽에 회반죽 마감 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증축 부분에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인 담장까지 0.5B 또는 1.0B 시멘트 벽돌 쌓기나 담장재료와 동일하게 속빈콘크리트블록(4인치)으로 시공하였다. 이때 마감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화장실), 외벽을 도자기질 벽돌타일붙임이나 치장벽돌쌓기를 하며, 이외에는 몰탈 마감에 수성페인트칠이 일반적이다.

지붕부는 전면 해체보수하지 않는 한 원형과 변용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확인을 대청을 통해 했으며, 부엌의 경우 실내화가 진행되며 대부분 합판으로 천장을 만들어 종이도배해 대다수 확인이 불가하였다. 가구 구조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1930년대 이전과 1931~45년에 3량과 평사량, 오량 한옥이 지어진 것으로 보아, 이때에 초가가 상당 수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수원 성역 내 한옥 중 64%가 1고주5량 가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당시 어느 정도 격식 있는 한옥이 신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까래는 2채 이외의 가옥이 원형 형태로, 홑처마와 겹처마가 각각 비등하게 파악된다. 겹처마의 경우 부연이 각형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5량가에서 보이는 서까래는 평균 직경이 D95.25mm @301.76mm 간격이며, 부연의 평균 폭은 75.7mm이다.

지붕은 현재 변용된 형태가 우진각과 팔작지붕이 상당한데, 이에 우진각 지붕은 1930년대 이전과 1931~45년 시기 신축된 한옥에 많은 것으로 보아 원래 추가였던 것을 시멘트기와나 함석지붕으로 변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료에 있어 현재 성역 내 시멘트기와 및 함석지붕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한식기와를 보수 교체해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법 변용 사항은 기존의 재료나 구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 물대장이나 거주자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지붕이나 기단 재료, 벽의 증축 부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원 성역 내 한옥 대다수는 현대 생활에 적합한 쾌적한 주거환경이기보다는 예전 그대로의 낡은 집에 거주함에 따라, 단열이나 화재, 방범 등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한옥 원형을 기반으로, 새롭게 지어질 한옥을 위한 한옥모델개발 뿐 아니라 기존 한옥의 유지·활용을 위한 연구가 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목적을 두고 있었다.

- 1) 수원 한옥의 원형을 규정한다.
- 2) 수원 한옥의 평면과 구법의 변용된 사항을 명확히 밝힌다.

수원 화성 성역 내 실측한 38채를 기준으로 수원 한옥의 원형과 변용된 사항을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형 한옥은 서울형 민가 평면과 유사한 ㄱ자형 안채로 나타났다. 38채 중 36(94%)채에 달하는 한옥이 ㄱ자형 안채를 보이며, 이후 실별 증축 사항이 있긴 하나 원래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ㄱ자형은 부엌+안방(꺾음)+대청+건넌방 순으로, 이러한 기본형에 건넌방이나 부엌 아래 찬방 등이 붙는다. 이 중 36채(94%)가 살림집으로 지어졌으며, 현재도 31채(82%)에 달하는 한옥이 살림집으로 그대로 사용 중이다.

한옥이 지어진 대지면적은 평균  $201\text{m}^2$ (60.80평)이며, 건축면적은  $65\text{m}^2$ (19.66평)에 이른다. 도시형 한옥으로서 분할된 필지에 건축되었으며, 그럼에도 좌향과 풍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 좁은 필지와 도로에도 불구하고 20채(53%)가 남쪽으로 면하고 동쪽면 또한 12채(32%)로 대부분 밝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진입은 도로를 고려해 정면 출입이 17채(45%), 우측이 13채(34%)로 나타났다.

수원형 한옥은 영조척이 평균 300.14mm로, 이는 1905년 도량형 규정에 따라 척관법의 기본단위인 303mm를 따른 것이다. 성역 내 38채 한옥의 단위공간별 평균을 통해 각 실의 원형 크기를 추정해보면, 대청은  $3,600 \times 3,600$ (12자 $\times$ 12자)정도, 안방은  $2,700 \times 3,600$ (9자 $\times$ 12자), 건넌방은  $2,400 \times 2,400$ (8자 $\times$ 8자)로 나타났다. 추가되는 방의 경우 8자 정도로 건넌방이나 부엌 아래 확장된다.

이러한 공간이 현대 생활 방식에 따라 실별로 통합 또는 증축되는 변용 사항을 보인다. 대지에 ㄱ자형으로 놓이며 도리 방향이나 배면의 담장까지 증축됨이 상당하다. 안채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각 실들 크기를 조금씩 넓혀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대부분 기능이 실내화 되면서 실별 위치 관계가 한옥 원형과 다른 점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존에 없었던 실내 입식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등이 그러하다. 부엌의 경우 기존의 재래식 바닥을 그대로 두어 샤워실로 용도를 바꾸고, 거실로 이용하는 대청의 배면으로 따로 증축해 부엌으로 사용한다. 또한 안채 원형에는 없었던 화장실, 욕실, 창고 등을 건넌방이나 찬방 옆에 추가 증축했다.

변용 시 증축 방식은 흙벽 구조로 증축하는 경우와 조적 방식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조적 장식으로의 증축은 시멘트벽돌이나 속빈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한 구축 방식으로, 배면의 인접대지경계선인 담장까지 실을 넓히기 위해 증축하거나 화장실, 창고 등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요구되는 실의 증축 시 주를 이룬다.

구법에 있어 수원시 한옥의 원형과 변용 사항을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단은 대부분의 가옥에서 형성하고 있으며 본래의 흙바닥이나 강회바름을 현재 38채 모두 시멘트몰탈 마감하였다. 지붕 내민길이를 늘리거나 차양을 설치함에 따라 기단을 추가 시공해 기단 내민길이가 원형보다 상당수 길어졌으며, 현재 평균 887mm로 나타났다.

벽체부는 크게 기둥과 외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원 성역 내 대부분의 가옥이 한 면 평균 131.18mm의 각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둥에 있어 상당수 큰 변용 사항이 없으며, 외벽의 경우 기존 흙벽의 두께와 비슷하게 증축하였다. 외벽의 두께는 평균 103.45mm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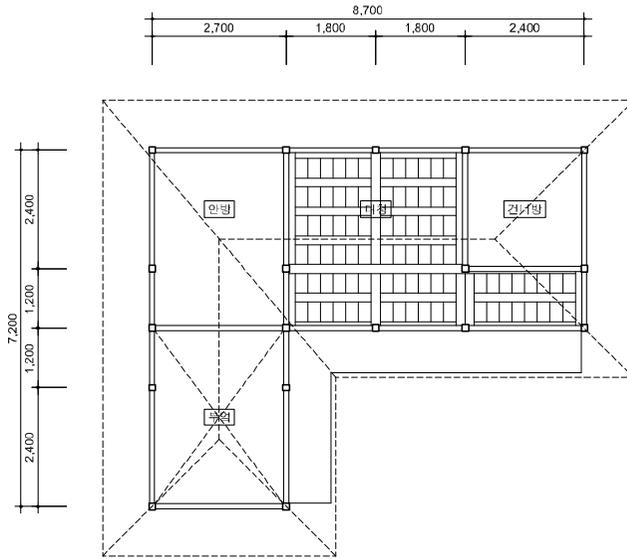
지붕부는 전면 해체보수하지 않는 한 원형과 변용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16채(64%)가 1고주5량가로 주를 이루는데, 당시 어느 정도 격식 있는 한옥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5량가에서 보이는 서까래는 평균 직경이 D95.25mm @301.76mm 간격으로서, 부연의 평균 폭은 75.7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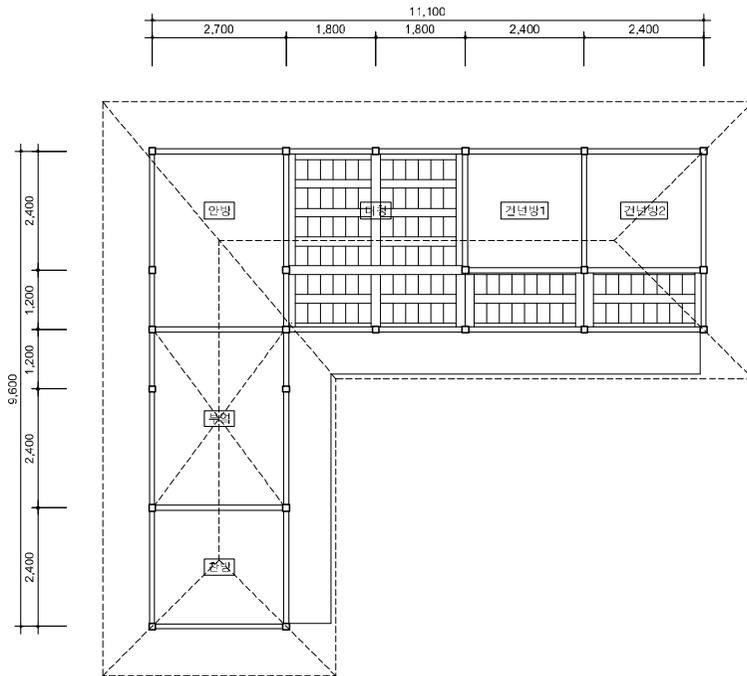
지붕 형태는 우진각과 팔작지붕이 상당한데, 특히 우진각 지붕이 1930년대 이전과 1931~1945년 사이 지어진 한옥에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초기였던 것을 이후 시멘트기와나 함석지붕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멘트기와 및 함석지붕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붕 내밀기는 외벽마감에서 처마끝선까지 현재 평균 966m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세 분석을 통해 수원시 한옥의 안채 원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ㄱ자 꺾음집에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을 기본으로 건넌방이나 찬방이 확장되며, 이에 각 실별 크기와 벽, 기둥 두께, 기단내밀기나 지붕내밀기 등 앞서 분석한 평균 치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변용에 있어 각 실들이 배면 담장까지 증축되는 정도로, 부엌이 실내화 되거나 화장실, 창고 등 새롭게 증축된 사항이 있으나 수원 성역 내 대다수 한옥에서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를 표준화해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하였다.

원형 기본형



원형 확장형



<그림 5-1> 수원 한옥의 원형

해당 연구의 수행은 수원시 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한옥 현황 조사 및 실측을 통해 이의 원형과 변용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이었다. 이에 수원시 성역 내 38채를 기준으로 파악된 변용 사항을 공간과 구법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일정 대지 내 수원시 한옥의 안채 원형을 그릴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며 실별 변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한 파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면 위주의 구법 관계를 분석한 바에 나아가, 향후 재료 간 구법 관계 등 좀 더 상세한 분석 단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측 불가 한옥(폐가 및 점집) 28채와 미실측 한옥 22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측이 이루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수원시 한옥 보존 및 활용 방안과 수원형 한옥 모델 개발에 대한 더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수원시, 수원시 도시변천사, 2006  
수원문화원, 수원 어제·오늘·내일, 1998  
수원박물관, 수원시 화성안 마을지, 2010  
경기사학회, 경기지역과 실학사상, 1999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2003  
문화체육관광부, 한옥의 정의와 개념정립, 2006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솔아카데미, 2006

## 2) 연구문헌

- 김홍식, 목재의 생산사 측면에서 본 한국 목조건축 미학의 변증법적 발전, 대  
한건축학회지 36권 4호, 1992  
주남철,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76  
이승종, 20c 초·중반 경기도 중산지역에 나타난 민가의 변천 연구 : 사회 경제  
에 따른 변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0  
안국진 외, 장의동 김진흥 가옥 정밀 실측 조사 보고서, 고려인쇄, 2013  
수원시, 수원 전통가옥 조사 및 연구, 2002.11



---

## 영문요약(Abstract)



## A study on the Hanok transformation in Suwon

Recent Suwon in an effort to promote the Hanok, Hanok activation policies in various fields, is running. The Hanok supply of other local government is only about expanding their numbers,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Hanok revitalization with a local identity should be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dentity of the Suwon Hanok. To prevent indiscriminate distortion of the space and many systems of the Hanok, in this study, before realizing Hanok activation policy, we want to trace the original form of the Suwon Hanok by the investigation and measurement. And Changes according to modern city living life to say the details.

First, to determine the status of Hanok in the sanctuary, the actual total was 38. And this space is divided and analyzed the space and the systems. As a result, the Suwon Hanok, similar to the plan of a private house Hanok in Seoul, which is  $\sqsupset$  shape. The average land area of a building is  $201\text{m}^2$  and  $65\text{m}^2$  of construction area.

Ultimately to promote the Suwon Hanok, is expected to raise its base. Not measured in this house for the sanctuary(total 22) are required to build more DB, so more specific details of the prototype and the transformation will be revealed. Based on this analysis, new Hanok model development can be performed. Third, the existing Hanok in DB is selected, and suggestion of use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Finally, improving institutional research will be done.

Through research on Hanok, the only one to control the physical environment,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Hanok secured

and identity can be obtained. Hanok policy before extending the number of objects, the more study of the identity establishment is required.

---

부 록





## 수원시 한옥 변용에 관한 연구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952339-5-3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